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82호 【루계 제25691호】 주체106(2017)년 7월 1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백두산천출위인들께

방글라데슈에서 상장들을 드리기로 결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방글라데슈준비위원회와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에서 6월 12일 상장들을 드리기로 결정하였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방글라데슈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엠디. 하룬 아르 라쉬드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위원장은 백두산위인칭송대회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께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는 세계적인 대정치축전이라고 하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백두산천출위인들께 상장들을 드리기로 결정한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6월 20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스푸뜨니크방송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새로 건설된 치파이생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무병장수를 위한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세상에 돌도 없는 조선의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해 조선로동당에서는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실지 페부로 절감하면서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로씨야의 인터네트잡지 《템위위》, 인터네트홈페지 《빠뜨리오띠 모스크바》, 라오스신문 《비엔티안 타임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헌지지도소식들》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콩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네팔신문 《아르판》과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네팔조선친선협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지상대해상순항로케트시험발사를 보아주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

김일성주석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김일성주석회고위원회가 6월 15일 쿠웨이트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쿠웨이트 타임스신문사 행정국장이며 쿠웨이트 아시아기자협회 위원장인 자위드 아흐마드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6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토론회,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김일성주석회고 방글라데슈위원회가 6월 16일에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방글라데슈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엠디. 하룬 아르 라쉬드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7월 8일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김일성주석회고 민주콩고위원회 결성식이 6월 16일 킨샤사에서 진행되였다.

민주콩고의 여러 정당, 단체인사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주콩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앙드레 로혜젤레 짤른다가 선출되였다.

위원장은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 사회주의조선의 눈부신 현실은 김일성주석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세계자주화위업의 길출한 수령이신 주석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으로 하여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고 강조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 조선에서의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을 헌명하게 이끌고계신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회고위원회는 7월 8일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회고모임, 업적토론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김일성주석회고위원회 결성식이 6월 15일 기네 코나크리에서 진행되였다.

기네의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인사들과 성원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기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리아트 살루브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그이의 업적을 길이 칭송하기 위해 회고위원회를 결성하게 된다, 회고위원회는 여러 행사들을 통하여 김일성주석의 고귀한 생애와 위인상을 널리 소개선전할것이다고 말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리아트 살루브가 선출되였다.

김일성주석회고 스웨리에위원회가 6월 16일 스톡홀름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공동위원장들로 스웨리에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테르 론드그렌, 스웨리에공산당 페테보리위원회 집행위원 다니엘 우프스트룀, 스웨리에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오스카르 룀베비가 선출되였다.

김일성주석회고 나이제리아 전국위원회가 6월 20일 아부쟈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이제리아인민민주당 신용위원회 위원인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브라힘 만루가, 부위원장으로 전 국회 하원 의장 아군와 아나에크헤가, 서기장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알하쌴 뎀벤무함마드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그이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회고모임,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김일성주석회고위원회가 6월 20일 단마르크의 페벤하븐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공동위원장들로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과 단마르크의 공산당 지도부성원 헨닝 야콥센이 선출되였다.

김일성동지회고위원회가 6월 12일 로씨야 모스크바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조책임자 미하일 위뮬린 미하일로비치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7월 8일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비롯하여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한편 김일성주석 서거 23돐 스위스회고위원회 결성식이 최근 바젤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뢰제르가 선출되였다.

결성식에서는 성명이 발표되였다.

성명은 김일성주석의 서거는 조선인민과 주체사상, 선군사상 신봉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실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은 하늘이 낸 위인이시며 조선해방의 은인, 반만년력사에서 조선인민이 처음으로 맞이한 민족적영웅이시다.

그이는 한세대에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강철의 명장,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조선을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헌명하게 이끄신 그이께서는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으로 하여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우리는 김일성주석의 영광찬란한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기 위하여 회고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회고위원회는 6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김일성주석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출판보도물들을 통하여 널리 소개선전하며 회고모임, 업적토론회 등 여러가지 행사들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만리마시대 첫 선구자작업반이 련이어 울린 승리의 개가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4.5갱 고경찬영웅소대에서 2년분 인민경제계획 완수, 최고생산기록 2.5배로 돌파

만리마시대의 첫 선구자작업반으로 온 나라에 널리 알려진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4.5갱 고경찬영웅소대에서 6월 29일 아침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여 만리마시대에 특기할 또 하나의 영웅신화를 창조하였다.

이들은 뜻깊은 태양절을 앞두고 년간인민경제계획을 104일동안에 끝내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축하전문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69일만에 한해분 인민경제계획을 또다시 수행함으로써 지난 시기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2년분 계획을 완수하던 소대의 기록을 6개월로 갱신하였다. 이 기간 월생산실적은 종전보다 2.5배 높아졌다.

결과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은 당앞에 한번 다진 맹세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고 해도 무조건 결사관철하고야마는 조선로동계급의 혁명적기질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고 상반년기간에 2년분 계획을 수행하는 새 기록을 세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축하전문을 받아안은 때로부터 불과 두달 남짓한 기간에 고경찬영웅소대에서 또다시 창조한 기적적인 성과는 령도자의 믿음과 기대에 실천으로 보답하려는 백옥같은 충정심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며 당중앙과 사상과 뜻을 함께 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정신력과 집단주의위력이 어떤 상상 못할 위훈을 낳는가를 뚜렷이 과시한 애국적 장거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중앙결사옹위는 조선로동계급의 제일생명이며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정밀한 광부들을 영웅소대동지들이라고 불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뜨거운 전우애에 무한히 고무된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은 심장의 피를 끓이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42년전 김덕땅에 처음으로 찾아오시였던 뜻깊은 7월 1일을 맞으며 2년분 계획을 점령할 대담한 목표를 내걸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만리마시대 첫 선구자작업반의 영예를 지닌 광부라는 남다른 각오, 온 나라의 작업반들이 자기들의 전진속도에 보폭을 맞추며 집단적경쟁에 떨쳐나섰다는 자각은 영웅소대 광부들의 혁명열, 투쟁열, 경쟁열을 백배해주었다.

소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전문을 한자한자 뼈으로 씨겨 막장휴게실에 정중히 모시고 교대별 생산총화때마다 자자구구 되새기며 새로운 명세를 가다듬었다.

모든 소대원들이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을 안고 자기 능력을 초월하는 새 기준, 새 기록창조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섰다.

영웅소대장 고경찬동무는 2년분 계획수행의 지름길을 열기 위한 치밀한 작전과 지휘로 증산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개척하였다. 소대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굴진대차를 단 열흘만에 착암대차로 개조하여 지심 700m 채굴장에서 잔주채굴의 안전성과 속도를 다같이 보장할수 있는 새로운 천공방법을 창안도입하였다. 련이어 채굴조건이 어려운 막장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인 붕괴식채굴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지난 5월 20일과 6월 5일 각각 2만여t의 광석을 단번에 락광하여 소대가 2년분 계획을 앞당겨 완수할수 있는 결정적돌파구를 열어놓았다. 화공품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때에는 기발한 착상으로 폭약소비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발파효률을 높일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여 자력자강의 힘으로 만리마속도창조에 련속 박차를 가하였다.

소대의 선동원인 로력영웅 김용식동무가 책임진 교대에서는 3대의 착암기를 만가동시키면서 광맥폭이 7m나 되는 암벽을 매달 8m씩 올리밀어 채굴장의 규모로 보아 1~2년은 실히 걸려야 한다는 기존관념을 깨고 단 넉달동안에 채굴을 전부 끝낼수 있는 눈부신 전진속도를 창조하였다.

지난해에 인민군대에서 제대되여 영웅소대에 배치된 량억철, 리충혁동무들은 꾸준히 배우고 또 배워 단독으로 채굴장을 맡을수 있는 기능을 소유하여 6월에 전달보다 3,000t의 광석을 증산하였다.

어머니당의 높은 평가를 받아안은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한 고경찬영웅소대 카족소대원들의 지원활동도 2년분 계획수행전투과정에 더욱 활발하게 벌어졌다. 그들은 만리마시대 첫 선구자작업반의 한 성원이라는 자각을 안고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가지고 막장으로 들어가 전투원들을 고무해주었고 로력이 긴장할 때에는 주저없이 남편들의 착암조수가 되여 증산투쟁에서 한몫 단단히 하였다. 어제날 광물생산으로 당을 받드는 길에서 고결한 생을 마친 고경찬영웅소대 6명 영웅의 안해들도 남편들의 몫까지 합쳐 더 많은 광석을 캐달라고 절절히 부탁하면서 지원물자를 가지고 막장에 들어가 소대원들의 심금을 크게 울려주었다.

이렇게 영웅소대원들의 증산투쟁에 가족들까지 합세하여 맹렬한 공격전을 들이대며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한 결과 소대에서는 지난 시기의 생산기록을 대폭 뛰여넘는 기적을 창조하고 당중앙에 승리의 보고를 자랑스럽게 올리였다.

온 나라에 소문난 영웅광부소대가 순간도 멈춤없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의 선봉에서 질풍같이 나아가도록 함경남도당위원회, 단천지구광업총국,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일군들이 수시로 그들의 전투막장을 찾아와 많은 후방물자와 생산에 필요한 자재들을 안겨주면서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위대한 만리마시대에 특기할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한 검덕의 영웅광부소대의 빛나는 전과는 그들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만리마선구자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집단적경쟁열풍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전국의 작업반들을 또다시 격동시키게 될것이다.

당중앙과 심장의 박동을 같이하며 만리마신화를 련이어 창조한 고경찬영웅소대 전투원들은 지금 만리마선구자대회전으로 3년분 계획을 무조건 완수할 애국충정의 각오안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가물과의 전투성과 계속 확대

모든 력량과 수단이 총동원, 총집중되고있는 사회주의전야마다에서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떨쳐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적으로 연 8만여정보의 논과 밭들이 푹 적셔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입니다.》

황해북도에서 인민군군인들은 물원천확보사업을 선행시키고 각종 론진기재들과 원동기, 양수기, 강우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며 매일 수천㎥의 물을 퍼올려 포전마다에 생명수가 흘러들도록 하고있다.

평안남도가물피해막이전투장에서도 인민군군인들이 련일 실적을 올리고있다. 이들은 단숨에의 기상으로 협동법들을 타고앉은 때로부터 2일동안에 500여개의 굴포와 1400여개의 우물을 파고 수십리 물길건설과 수력리구간의 물길확장공사를 해제끼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농업성을 비롯한 각급 농업지도기관들과 협동농장의 일군들은 양수동력설비들을 적극적으로 리용하고 포전별농작물생육실태를 따져가며 가물을 탈수 있는 포전들부터 집중적으로 관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우물과 굴포, 흘쌍을 새로 확보하고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뜨락또르와 발구지를 비롯한 모든 운반수단들에 물통을 설치하여 더 많은 물을 실어나르도록 하고있다.

평안북도에서는 가물극복대책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원동기가 달린 양수기 50대를 시, 군들에 긴급보장하였으며 함경남도 정평군에서도 9개의 양수장을 새로 건설하는데 필요한 많은 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하고 10여㎞의 물길가시기를 진행하여 물보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물차와 양수기, 배낭식분무기 등을 가지고 농촌들에 달려나간 국가계획위원회, 대외경제성, 기계공업성,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은행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과 지원자들은 농업전선을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주인다운 자각을 안고 매일 맡겨진 물주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합된 힘은 자연의 횡포를 과감히 물리치며 날마다 새로운 성과들을 낳고있다.

— 봉천군 가물피해막이전투장에서 —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가물피해막이전투로 들끓는 룡천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룡천벌이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끓고있다. 가물피해막이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에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해나선 이곳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며 결사적인 투쟁을 벌려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수백정보의 포전에 대한 물주기가 진행되고있다.

룡천군의 근로자들이 오늘날 가물과의 전투는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사회주의조국존엄사수전이라는 비상한 각오안고 백열전을 들이대고있다.

앙양된 대중의 투쟁열의에 맞게 군에서는 모든 력량과 수단, 내부예비를 총동원하여 포전을 흠뻑 적셔 농작물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도록 하고있다. 해당 단위들을 타고앉은 군의 일군들은 대중과 어울려 일하며 심장에 불을 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 제기되는 문제를 시급히 풀어주어 그들이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게 하고있다.

군에서는 시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집중적인 물주기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그 효과를 최대한 높이고있다. 가물피해를 받는 포전들에 대한 물주기는 물론 김매기와 후치질 등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 농작물이 가물을 타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놓치지 않고 내밀고있다. 또한 군에서는 양수설비들의 만가동, 만무하를 보장하기 위해 예비부속품들을 원만히 갖추어놓고 수리정비를 제때에 하도록 하는 한편 동력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포전에 물을 넉넉히 보내주게 하고있다.

신암, 장산, 룡암포협동농장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신암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은 물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는 사업에 큰 힘을 넣어 많은 굴포와 우물을 새로 조성한 기세드높이 포전에 고랑관수, 강우기관수를 들이대고있다. 이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남먼저 새날을 맞고보내며 농장의 주인으로서의 구실을 다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고있다. 가물과의 투쟁이 더욱 고조될수록 이곳 일군들은 대중의 앞장에서 앞채를 메고 이신작칙하며 양수공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더 많은 물이 포전에 가닿게 하고있다.

장산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강우기를 비롯한 여러 설비들을 완전복구하는 한편 부족되는 소형양수기들을 자체로 확보함으로써 물주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이들은 강냉이 한포기한포기를 제 살점처럼 여기며 땅을 일정한 깊이로 파고 물을 충분히 준 다음 흙까지 덮어주어 물기가 증발되지 않게 원심을 쓰고있다.

룡암포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주타격전방을 지켜선 전투원답게 맡은 포전은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진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그날계획은 그날로 무조건 수행하는 투쟁기풍을 발휘하고있다. 또한 가물이 지속되는 조건에서 그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적극 도입하면서 포전에 식물성장촉진제를 분무하여 농작물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있다.

군안의 기관, 기업소, 공장의 근로자들은 전화의 그 나날 조국의 존토를 피로써 지켜싸운 인민군용사들처럼 오늘의 가물과의 대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기 위해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이들은 한포기에 물을 주어도 가물을 이겨낼수 있게 물을 들여가며 책임적으로 일해나가고있다.

물원천을 최대한 탐구동원하고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이 광범히 벌어지는 속에 군적으로 하루에 근 300정보의 포전에 물을 대주고있다.

염주군의 여러 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도 련속적인 공격전을 벌려 가물과의 전투에서 실적을 부쩍 올리고있다. 이들은 한방울의 물도 허실함이 없이 보조리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면서 양수설비들의 만가동, 만무하를 보장하는데 힘을 기울이고있다. 또한 농작물에 대한 비배관리를 적극 따라세워 가물에 의한 피해를 이겨내도록 하는 사업을 깐지게 해나가고있다.

지금 룡천벌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의 사상과 뜻을 결사적으로 실천하는 투쟁기풍을 발휘한다면 땅속의 물도 퍼올리고 강줄기도 돌려 포전마다에 생명수가 철철 흘러넘치게 할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안고 가물과의 투쟁에서 승전포성을 울리기 위해 배가의 박차를 가하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쌓으신 어버이수령님의 업적 천만년 전해가리

우리 수령님 인민의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불타는 7월이다.

뜻깊은 올해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하여,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성대히 빛내이기 위하여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마음은 위대한 수령님께로 끝없이 달린다.

한평생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구현하시어 이 땅우에 인민을 위한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의 정치를 펼치신 우리 수령님!

오늘도 마음속 깊은 곳에 소중히 자리잡은 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을 우러를수록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더욱 가슴뿌듯이 절감하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이 곧 사상리론으로, 로선과 정책으로 되였으며 인민대중에게 쉽게 리해되고 그들이 나아갈 운명개척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이 세상에 태양이 없는 화원을 생각할수 없듯이 우리 조국땅에 펼쳐진 아름다운 인간사랑의 화원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지난날 암흑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던 이 나라 인민을 인간사랑의 따사로운 해빛으로 가장 값높고 빛나는 삶의 령마루에 올려세워주신 위대한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다.

위인에 대해 알려면 그의 좌우명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민위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지론이였고 좌우명이였다.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야말로 혁명의 위대한 스승이다.

이렇듯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과 뜻과 정을 나누시며 인민이 바라는 모든것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주시였다.

언제인가 어느 한 나라 정객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자리에서 이런 물음을 제기한적이 있다.

《어디에 가든지 〈이 언제는 우리의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일떠선것입니다.〉라든가 〈이 파수원은 전쟁을 하고있을 때 수령님께서 전쟁이 끝나면 파수원을 만들자고 교시하시고 또 지도해주셨기때문에 생긴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것이 〈김일성주석님의 지도〉로 되였다고 하는데 주석님께서는 언제 그런 전문기술들을 공부하셨습니까?》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조선혁명박물관에서—
김 광 림 찍음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농민들이 나를 보고 여기는 조건이 좋으니까 과일이 잘 자란다고 가르쳐주고 건설부문 일군들은 여기에 언제를 쌓으면 물이 고여 관개용수로 쓸수 있다고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나는 가서 보고 결정했을뿐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렇다. 혁명령도의 전기간 인민들의 념원과 의사를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고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그 나날에도 인민들의 소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혁명승리의 비결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

주체22(1933)년 가을 소왕청유격구에 생사존망을 가늠하기 어려운 위험이 닥쳐왔을 때의 일이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로인의 집에서 하루밤을 묵으시였다.

소왕청에는 2개 중대의 유격대력량밖에 없었다. 적들은 대포와 비행기로 무장한 수천명의 병력이였다.

유격구방위문제를 놓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인과 기탄없이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새겨듣던 로인은 근엄한 표정을 짓더니 대원이 부족하면 자기도 대장의 부하가 되겠다고 하면서 모두가 싸움군이 돼서 너 죽고 나 죽고 해볼판이라고 말씀드리였다.

순간 위대한 수령님의 심정은 막혔던 물목이 터지는듯싶으시였다.

소왕청유격구방위전은 적군 대 항일유격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적군대 유격구내 전체 군민과의 싸움으로 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인의 이야기에서 유격구에 닥쳐온 난국을 타개할수 있는 출로를 찾으시였다. 소왕청방어전투의 위대한 승리를 담보한 전민항전방침은 이렇게 마련된것이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위대한 혁명생애의 나날에 만나주신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 거기에는 로동자와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하여 백발의 로인으로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 다 있었다.

그 잊을수 없는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이라는 바다속에서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를 펴나가시였고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새로운 인민적인 령도방법을 완성시켜나가시였다.

내각결정 제73호가 채택되던 가슴뜨거운 이야기는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뭉뭉 울려준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6월 평원군일대를 지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 논밭머리에서 물동이로 물을 길어다 조금씩 부으며 꼬창모를 내고있는 농민들을 보게 되시였다.

그 광경을 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인들에게 물길는데가 얼마나 먼가고, 하루에 몇동이씩이나 긷는가고 물으시였다. 물때문에 고생하는 녀인들이 걱정되시여 이렇게 꼬창모를 내야 하는 해가 자주 있는가고 또다시 물어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어조는 무거우시였다.

그이께 녀성들은 이 고장에서 농사를 짓자면 벌수가 없다고 하면서 여럿이 물을 길으니까 성수가 난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들이 례사롭게 하는 말을 들으시며 한 녀성의 머리를 눈여겨보신 위대한 수령님의 마음은 몹시 피로우시였다. 그의 정수리가 헐어있었던것이였다.

사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 오전중에 평양으로 돌아오게 되시였다. 그러나 일정을 바꾸어 여러 군들을 더 돌아보시였다.

어느곳에선가 그이께서는 너무 속이 상하시여 꼬창모 한포기를 손에 쥐고 차에 오르시였다. 그 꼬창모가 그날 내각성원들을 부르신 방의 책상우에 놓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농민들은 가물과 싸우느라고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고생을 하고있다고, 물이 바른 지대의 농민들은 말라붙은 논바닥에 물동이로 물을 길어다 한포기한포기 꼬창모를 내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다들 보시오. 이것이 꼬창모요. …

동무들도 쌀을 먹고 나도 쌀을 먹소. 이 쌀을 농민들이 힘하게 생산해야 그것을 먹는 사람의 마음도 편할게 아니겠소.》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물때문에 고생하는 농민들의 고통을 가셔주고 그들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한 관개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시고는 즉시 그 자리에서 대책적문제를 토의하시였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내각결정 제73호가 채택되였다. 결정에는 평남관개 2계단공사를 벌리며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수백개소의 중소규모관개공사와 하천공사를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릴것이 명시되였다.

내각결정 제73호는 꼬창모를 심는 농민들의 정상을 목격하시고 그리도 가슴아파하신 우리 수령님의 그 사연을 깊이 담고있는 결정이였다.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 시장에 친히 나가시여 지짐장사와 고기짐주인도 만나보시며 인민들의 전시생활조건을 알아보시고 지하시장을 세우도록 조치를 취해주신 사실, 전후 평양에서 처음으로 건설된 다층주택에 새로 이사한 세대를 찾으시여 주인아주머니의 말에서 인민들이 좋다면 다 좋은것이라고 하시며 집집마다에 온돌방을 꾸려주도록 하신 이야기, 나어린 처녀병사가 동생에게서 신발이 부족하다는 편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것을 군중의 요구로 헤아리시고 진행하신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비드나루가 많아 류경이라고 한 평양의 오랜 자랑을 소중히 간직하고있는 인민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시고 찍어버릴번 했던 나무들을 그대로 두도록 하신 감동깊은 사연…

진정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을 위해 돌려주신 사랑의 이야기들을 다 전하자면 끝이 없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 사업하시는것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기쁨이였고 즐거운 휴식이였다.

어느 일요일인가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을 념려하여 하루만이라도 쉬실것을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장이나 농촌을 돌아보는것보다 좋은 휴식이 어디 있겠는가고 하시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고심하던 문제를 풀수 있는 고리를 찾아내거나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를 포착할 때처럼 기쁜 일은 없다고, 이것도 다 자신에게는 좋은 휴식이라고, 그러니 따로 무슨 휴식이 필요하겠는가고 하실 때 우리 일군들 얼마나 눈굽을 뜨겁게 적시였던가.

끝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인민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박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내세우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우리 인민들이 하는 말은 평범하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속에 핵이 있다고 보시였다. 인민들의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제때에 포착하신 요점들을 당과 국가의 정책에 그대로 담으시였다. 인민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보시고 현실로 꽃피워주신 이렇듯 위대한 사랑을 우리 인민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못 잊는다.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의 력사는 이 땅우에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인민에 대한 성스러운 복무로 한생을 불태우신 절세의 위인, 자애로운 어버이, 인민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을 못잊어 부르는 태양의 노래가 7월의 하늘가에 끝없이 울린다.

한평생 인민위해 바친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
꿈결에도 안고사는 마음
오늘도 그 품을 찾네
위대하신 수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

본사기자 림 정 호

군중속에서 찾아내신 해결방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는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예술의 빛나는 귀감입니다.》

주체57(1968)년초 경제부문 일군들은 사회주의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페블선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몹시 애를 태우고있었다.

일군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연구와 토론을 해보았지만 신통한 방안이 서지 않았다.

결국 그들이 찾은 출로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할수 없거나 생산량이 적은 페블선들을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것이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날 해당 부문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일군들은 그때에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킬 해결방도를 내놓지 못하였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공장의 로동계급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계급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여러가지 페블선들의 생산문제를 상정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절실히 필요되는 페블선들의 규격별, 용도별생산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그 질박성에 대하여 알려주시였다.

좌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나라의 긴장한 사정까지 터놓고 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이 될수 있는 시원한 대답을 올리지 못하는것이 죄스러워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있었다.

이때 한 로동자가 불쑥 일어섰다.

《수령님, 저희들이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페블선을 뽑아내겠습니다.》

그를 대견하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공장의 로동계급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으심에 그는 지난 기간에 남들이 못한다고 하던 숱한 기술적문제들도 풀었는데 여러가지 페블선들을 만드는데서 필요한 기술적문제도 로동자들의 창조적지혜를 모아 곧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생각하고있던 방도까지 터놓았다.

그의 의견을 적극 지지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이 실현되도록 온갖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공장에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만들수 없다고 하던 여러가지 질좋은 페블선들을 훌륭하게 만들어냈다.

우리 로동계급의 힘과 지혜를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그들의 소박한 의견도 귀중히 여기시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신 위대한 수령님,

진정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인민은 불가능을 모르는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자라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말 몰아낼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본사기자 강 원 남

법전의 갈피마다에 어려있는 뜨거운 사랑

국가와 함께 태어난 법의 력사는 오래다. 그 모든 법들은 례외없이 지배계급의 리익을 대변하는 수단으로 되어왔다.

이 땅우에 인민이 주인된 나라를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의 모든 법들은 철두철미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인민을 위한 법으로 될수 있었다.

공화국의 첫 헌법

우리 나라에서 첫 헌법초안이 작성되던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법전분과들은 물론 각 부문의 전문일군들은 인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헌법초안을 작성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작성된 헌법초안을 헌법초안토론분과위원회에서 연구토론하고 또다시 북조선인민위원회(당시) 일군들과 관계부문의 일군들이 구성체계로부터 내용, 구체적표현에 이르기까지 심의하도록 하시였다. 그리시고도 제기되는 의견에 대한 수정보충방향과 대안을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수정보충된 헌법초안을 몇번이고 검토하면서 가필하시였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에 그치지 않으시였다.

인민보건법의 한 조항에도

어느해인가 한 병원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고를 돌아보시다가 한옆에 쌓여있는 고려약재들을 보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약재 하나를 집어드시고 일군들에게 그것이 어떤 병에 좋은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에서 왜놈들과 싸울 때 부상자가 생기거나 앓는 사람이 있으면 주로 산에 있는 약초를 뜯어다가 치료하였다고 하시면서 고려약은 우리 선조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 사용해온것이기때문에 파악이 있고 또 고려약재들은 우리 나라 산과 들 그 어데 가나 있으므로 치료사업에 널리 리용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의료일군들과 여러차례 자리를 같이하시고 약초생산문제에 대하여서와 고려치료, 신의치료를 잘 배합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광범한 대중의 의견을 받아야 헌법에 인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수 있다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의도였다.

무려 70여일동안에 진행된 공화국헌법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사업의 결과 가장 인민적이고 공명정대하며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는 헌법이 완성될수 있었다. 우리 공화국의 첫 헌법은 이렇게 마련되였다.

그리고 그것을 법화하도록 하시였다.

민족적전통으로 내려오는 고려치료를 잘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고려의료망을 늘이며 의료기관들에서 현대의학적진단에 기초한 고려치료방법을 널리 받아들일데 대한 인민보건법의 조항에는 이렇듯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신 우리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어리어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법

수십년전 3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시의 한 탁아소를 찾으시였다.

일군으로부터 가정부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살림집아래층을 탁아소와 유치원으로 꾸렸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젖먹이방, 놀이방, 잠자는 방…

탁아소를 일일이 돌아보시며 어린이는 몇명인가, 온수난방은 되여있는가, 방안의 온도는 몇℃인가 일일이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어느 한 방에 들어가시여 어린이침대에 있는 베개와 이불도 손수 만져보시면서 이런 이불포단이면 아이들이 저절로 잠이 오겠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다층살림집밑에 탁아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고 녀성들의 부담도 덜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때로부터 몇년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에서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여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키우는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본사기자 백 영 미

위인의 류다른 휴식

우리 당력사의 갈피에는 불철주야로 헌신하신 어버이수령님께 잠시나마 휴식을 보장해드리기 위하여 여러차례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결정들이 채택된 사실들이 새겨져있다.

그러나 매번 그 결정들은 집행되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였다.》

주체52(1963)년 12월에도 우리 수령님께서는 자신께 차례진 휴식을 인민을 위해 고스란히 바치시였다.

그때 황해북도에 내려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서흥군의 외진 산골마을을 찾으시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양지바른 산기슭에 자리잡은 어느 한 학교앞을 지나실 때였다.

그이께서는 차창밖으로 솜옷을 입지 못하고 길가에서 놀고있는 몇명의 학생들을 보시고 차를 멈추게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모자를 벗고 인사를 올리는 한 학생의 머리에 다시 모자를 씌워주시고 그의 손을 두손으로 감싸쥐시며 춥지 않은가고 물으시였다.

학생들은 함창이라도 하듯 춥지 않다고 씩씩하게 대답을 드리였다.

춥지 않다니, 이렇게 홑것을 입었는데 왜 춥지 않겠느냐고 하시며 어두운 안색으로 그들의 잔등을 한동안 쓸어주시던 그이께서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줄것이란 사과 몇알뿐이니 이 사과라도 받으라고 하시며 손수 학생들의 손에 사과를 쥐어주시고서야 차에 오르시였다.

일군들이 시간이 퍽 지났으니 마을에 들어가 식사를 하셨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올렸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의 생활이 아직도 펴이지 못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들어가 페를 끼치겠는가고 하시며 산기슭의 바위우에서 점심식사를 드시였다.

그리고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였다.

겨울해가 서산을 넘어가면 저녁녘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마을의 녀성작업반장을 만나시여 그의 가정과 마을형편을 알아보시였다.

그의 말을 통하여 마을사람들의 생활형편에 대하여 알게 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농민들의 생활이 펴일것 같은가고 물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늦어서야 숙소로 돌아오시였다. 숙소의 방에서는 온밤 불빛이 쏟아져나왔다.

일군들은 그이의 건강이 념려되여 거듭 쉬실것을 말씀올렸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의 생활이 펴이지 못했는데 백날을 휴식한들 자신의 마음이 편안하겠는가고 하시며 휴식은 못해도 좋으니 농민들의 생활문제를 풀 방도를 생각해보자고 하시고는 한밤을 꼬박 새우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황해북도의 당 및 행정경제기관 일군들을 부르시여 협의회를 하시였다.

협의회를 지도하시는 과정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이 자기 단위의 실정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이 리에 내려가 구체적인 실태를 알아가지고온 후에 회의를 계속하자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몸소 일군들과 함께 봉산군 류정리를 찾으시고 그곳 로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시며 산골농민들이 잘살 방도도 의논해주시였다.

이렇게 농촌마을들에 나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다시 협의회를 여시였다.

협의회는 한낮이 기울어서야 끝났다.

일군들이 잠시라도 쉬시기를 바랐건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날 오후 또다시 현지에 나가시여 벌방지대 농민들의 생활형편까지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서야 이곳을 떠나시였다.

모처럼 채택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휴식하기 위해 오셨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농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방도를 모색하시며 심려와 로고로 이어진 낮과 밤들을 보내시고 평양으로 향하시였다.

그로부터 한주일이 지난 12월 20일,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솜옷과 모자를 무상으로 공급할데 대한 내각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으며 12월 23일에는 당중앙위원회 부장전원회의를 여시고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에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과 농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듬해 2월에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시였다. 뒤이어 우리 농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철폐할데 대한 력사적인 법령들과 농촌을 전국이 지원할데 대한 결정들을 련이어 채택하게 하시였다.

그 모든것이 어버이수령님의 류다른 휴식에 의하여 마련된것임을 사람들은 그때 다 모르고 있었다.

본사기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하르툼

수단공화국 대통령

오마르 하싼 아흐마드 알 바쉬르각하

나는 수단혁명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경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정부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6(2017)년 6월 30일 평 양

킨샤사

콩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죠제프 까빌라 까방게각하

나는 귀국의 독립 57돐에 즈음하여 각하와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또한 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근 외세의 압력과 내정간섭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나라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귀국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친선협조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이 건강할것과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6(2017)년 6월 30일 평 양

군민대단결의 위력 힘있게 떨쳐 가물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자

황해남도가물피해막이전투장에서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 특질이며 투쟁기풍입니다.》

온 황남땅이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끓고있다. 지금 황해남도에서는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가물과의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군대와 인민의 단합된 힘으로 단 며칠동안에 1 000여개의 우물과 수백개의 굴포, 240여개의 보막이공사, 연 16km의 물길확장공사가 진행되였다.

도적으로 매일 1만 수십대의 자동차와 트락또르, 소달구지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이 총동원되고있다.

수십대의 유압식굴착기와 유압식삽차들을 만가동시켜 10만 수천㎥의 토량을 처리하면서 200여개소에 보막이, 저류지공사를 진행하여 600여정보의 논밭에 물을 댈수 있게 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로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은 가물피해막이전투는 당중앙옹위전, 사회주의조국존엄사수전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피면서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책임일군을 비롯한 도당위원회일군들은 나라의 알곡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황해남도의 중요성과 특성에 맞게 도안의 각급 당조직일군들이 결사의 각오를 안고 가물피해막이전투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강령군을 비롯한 가물이 심한 군들에 이동식양수기와 배낭식분무기 등을 마련해가지고 나간 도급기관 일군들은 농장일군들, 농장원들과 물주기도 함께 하고 물원천을 확보하여 가물피해막이를 위한 전투를 과학적으로 통이 크게 해나가고있다.

물원천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는 언제나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들인 인민군군인들이 서있다.

강령군에서는 송천, 내동, 오봉리지구에 연 수㎞나 되는 물길을 새로 건설하여 포전을 적시고 흘러나온 퇴수를 다시 리용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군민협동작전을 펼치였다.

당의 전투적호소에 심장으로 화답하여 물길공사에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은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함마전을 들이대며 돌격로를 열어나갔다.

군인들과 농장원, 지원자들은 한마음한뜻이 되여 매일 공사속도를 부쩍 높여나갔다. 결과 연수㎞에 달하는 물길건설이 단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결속되였다.

자연의 횡포와 인간의 의지와의 대결전은 옹진땅에서도 치렬하게 벌어졌다.

하늘을 보지 말고 땅속을 보자고 하면서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농장원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렬에서 폭풍처내달리는 인민군대의 투쟁본때,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물원천확보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군에서는 화산저수지에 물을 채울 목표밑에 이미 있던 지하저수지능력을 2.5배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힘있게 내밀었다.

수천㎥의 흙과 수백㎥의 막돌이 있어야 하였다.

일군들은 들끓는 현장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작전과 지휘를 제기있게 해나갔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지는 속에 단 3일동안에 지하저수지확장공사가 끝나게 되였다.

신원군의 일군들은 30여개소의 양수장들에서 제기되는 자재와 부속품들을 풀어주어 양수기들이 만가동하도록 하고있다.

배천군에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 농장원들, 인민군군인들이 떨쳐나 하루동안에 주요물길 6개소에 연 60여㎞의 물길을 정리하여 많은 면적의 포전들에 물을 댈수 있게 하였다.

봉천군, 태탄군, 연안군, 청단군을 비롯한 여러 군의 일군들도 가물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면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도농촌정리위원회에서는 물확보전투를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가물이 지속되는데 맞게 비배관리를 깐지게 하도록 기술적지도를 짜고들고있다.

특히 도에서는 모든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이 농작물비배관리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들을 잘 알고 실속있게 해나가도록 하고있다.

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은 배낭식분무기를 리용하여 포기마다 물을 주고있다. 이와 함께 토양긁어주기, 김매기, 강냉이잎자르기 등을 동시에 내밀고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의 협동작전에 의하여 가물피해막이성과는 날이 갈수록 계속 확대되고있다.

생명수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옹진군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적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자연의 횡포와 인간의 의지와의 대결전이 여기 옹진땅에서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포전의 생명수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군일군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렬에서 폭풍처내달리는 인민군대의 투쟁본때,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물원천확보에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농장들에 내려가 군대와 인민의 단합된 힘이 있는 한 오늘의 가물피해막이전투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조건이란 하나도 없다는 투철한 정신으로 대중을 무장시키기 위해 집중포화, 명중포화, 련속포화로 일대 사상공세를 들이댔다.

특히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일군들은 급수사령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물공급과 지휘를 짜고드는 한편 가물피해를 만거나 가물이 예견되는 포전들을 구체적으로 조사장악하고 물확보를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해나갔다.

군에서 총전에 있던 지하저수지능력을 확장할 높은 목표를 세웠을 때였다.

처리해야 할 토량만도 아름찼다. 더우기 물운반과 물주기전투가 동시에 벌어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로력도 자동차도 긴장한 상태였다.

하지만 전투현장으로 달려나온 인민군군인들의 대답은 《알았습니다.》라는 오직 하나였다. 인민군대의 정신력, 그것은 자재도 낳고 공법도 로력도 낳는 만능의 힘이였다.

붉은기들이 세차게 휘날리고 첨입식정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전투장은 군민의 단합된 거대한 힘이 분출되는 분화구로 화하였다.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는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들인 인민군군인들이 서있었다.

가물과의 투쟁은 당중앙옹위전,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것을 뼈에 새긴 인민군군인들은 한몸이 그대로 양수기가 되고 샘줄기가 되여서라도 가물피해를 기어이 막을 각오로 떨쳐나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였다.

인민군군인들의 투쟁본때에서 힘과 용기를 얻은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도 맡겨진 하루과제를 넘쳐 수행하기 전에는 전투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지하저수지확장공사는 짧은 기간에 결속되였다. 이와 함께 한방울의 물이라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는 속에 근적으로 하루동안에 포전들에 생겨난 물주머니는 4 000여개에 달한다.

지금 무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군민대단결의 힘으로 파잡히 맞받아 뚫고나가는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 지원자들은 용기백배하여 총돌격전을 벌려나가고있다.

이것이 우리의 투쟁본때이다

조선인민군 장현철, 최은철소속부대 군인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연백벌로 한발음에 달려나온 인민군대의 각 부대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가물피해막이전투에 일제히 돌입하여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시대의 기수, 돌격대가 되여 당이 부르는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여야 합니다.》

전투가 시작되여 단 5일동안에 가물이 심한 1 200여정보의 논과 밭에 물주기를 진행하고 연 16㎞의 물길을 새로 내거나 보수하였다. 또한 연안군 도남, 정촌, 와룡협동농장을 비롯하여 가물피해가 심한 지역들에서 저류지확장, 보막이공사를 동시에 내밀고있다.

이 성과는 함북도 북부피해전역과 며칠거리건설에서 새로운 영웅적신화를 창출한 만리마시대의 창조자들답게 가물피해막이전투에서도 백두산혁명강군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치려는 이들의 불굴의 정신력이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전투에 진입한 조선인민군 장현철소속부대 앞에는 처음부터 난관이 막아나섰다. 물원천이 부족하여 포전들에 물을 댈수 없었기때문이였다. 하지만 이들은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앞에서 주저와 동요를 몰랐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무조건 결사관철하자!

인민군군인들의 가슴마다에서 이런 심장의 웨침이 터져나왔다.

들끓는 전투현장에 좌지를 정한 지휘관들은 정황판단, 결심제력을 즉시에 진행하였다.

와룡지구로 흐르는 강하천 6㎞구간에 대한 강바닥과기와 제방보수공사작전이 펼쳐졌다. 처리해야 할 토량만 해도 3만㎥, 작업량이 너무도 방대하여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던 공사였다. 방대한 공사량과 불리한 조건앞에서 부대장병들의 결심은 어떠했는가.

기계수단이 도착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는것은 혁명군대의 일본새가 아니다. 대답은 오직 하나 《알았습니다.》였다.

손에손에 삽을 굳게 틀어잡은 군인들이 주저없이 전투에 달라붙었다. 돌격구령소리가 높이 울려퍼지는 속에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결사전이 벌어졌다.

자기 교대시간에 2배, 3배의 작업량을 해제낄 높은 목표를 내걸고 군관들, 사관들이 앞장에 섰고 그들의 뒤를 병사들 모두가 따라나섰다.

분분초초가 천금같이 귀중한 그들이였기에 숙소로 오고가는 시간을 아껴가며 불꽃튀는 전투를 벌렸다. 3일간의 치렬한 격전끝에 기어이 열어놓은 하천으로 물이 흐르는 그날 농장원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 보내주신 인민군대가 있어 말라들던 포전들에 생명수가 흘러드는 기적같은 현실이 펼쳐졌다고 누구나 감탄하였다.

이 부대만이 아니였다.

조선인민군 최은철소속부대 앞에 많은 토량을 처리하여 물원천을 찾아내야 할 과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지휘관들이 남먼저 뛰여들어 흙을 파제꼈다. 그 모습을 병사들은 말없는 돌격구령으로 받아들이고 떨쳐나섰다.

군인들은 매일 당장 비가 온다고 하여도 오늘 밤 12시까지는 무조건 물원천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안고 순간의 휴식도 없이 그야말로 치렬한 전투를 벌렸다.

기계수단도 들이댈수 없는 조건에서 그들은 순수 마대와 질통으로 흙을 져날라 단 3일동안에 넓은 면적의 감량만을 메워 어기서 나오는 물을 얻게 되였다. 그리하여 많은 면적의 논에 물을 줄수 있는 물원천을 확보한것은 물론 새땅에비도 찾아냈다.

당과 사상과 뜻도 말걸음도 같이하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렬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인 투쟁성과는 연안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주도세밀한 작전, 완강한 실천

연안군에서

연안군안의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가물피해막이전투에서 혁신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현재까지 군적으로 우물 550개, 굴포 283개, 9개소의 지하저수지, 78개소의 보막이건설, 수천정미의 물원천을 확보…

이 성과속에는 강줄기를 돌려세라도 땅속의 물을 모두 퍼올려서라도 기어이 정체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고를 울려 쌀로써 당중앙을 옹위하려는 이곳 일군들의 불굴의 정신력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투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여기에 일군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우리에게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습니다.》

군의 물보장조건은 매우 불리하였다. 봄부터 지속되는 가물로 하여 올해농사를 지을수 있는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던것이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은 신심을 잃기 시작하였다.

그때 군당위원장 허영호동무를 비롯한 군책임일군들의 생각은 달랐다.

기적은 결코 하늘이 주는 우연이 아니다. 패배주의에 빠져 조건타발을 넘볼외우듯 하는 일군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 가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조건이 불리할수록 더 크게 보록을 내짚자.

이렇게 호소한 군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이 오늘의 가물피해막이전투장은 당에 대한 충정심을 검증받는 마당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충분발휘키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그들은 가물이 심한 룡호협동농장에 달려나가 현장에 좌지를 정하고 피해막이작전을 하면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려는 일군들의 배짱과 의지는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키였다. 그리하여 며칠동안에 농장들에서는 2 000여㎥능력의 저류지와 500여㎥능력의 보막이공사, 1 000여㎥능력의 굴포과기를 해제끼는 기적을 창조하게 되였다. 이 나날은 포전의 생명수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기어이 찾아야 한다는것을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심장에 다시금 새겨준 과정으로 되였다.

군일군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가물피해막이전투의 승패는 물원천을 더 많이 확보하는데 있었던것이다.

유능한 작전가, 솜씨있는 지휘관의 투기는 무슨 일이든지 과학적으로, 창발적으로 하는데 있다.

와룡리에 건설한 대형양수장을 놓고보자.

군일군들은 가물때마다 물부족으로 부흥, 발산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들이 알곡생산에서 지장을 받군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밟아보며 방도를 모색하였다. 그 과정에 와룡리의 어느 한 지구에 양수장을 건설하여 포전을 적시고 흘러나가는 퇴수를 끌어올려 발산, 부흥, 와룡, 천태협동농장을 지나는 물길에 넣어주면 물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였다.

현장을 밟아보며 실태를 환히 꿰들면서 작전계획을 구상하고 전투진지도 먼저 차지하면 그다음의 일은 저절로 풀려나가게 되는 법이다. 일군들은 짧은 기간에 양수장을 건설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결과 이 양수장이 건설되여 수천정보의 논면적에 물을 충분히 댈수 있게 됨으로써 그 어떤 창가물이 들어도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지금 군에서의 가물피해막이와 물확보전투성과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이렇게 말한다.

조건이 불리할수록 주도세밀한 작전밑에 완강하게 실천해나갈 때 가물피해막이전투에서 승리자가 될수 있다고.

승리를 확고히 내다보며

배천군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배천군의 협동법들이 가물피해막이전투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며칠동안에만 하여도 수많은 인민군군인들과 농업부문 일군들, 근로자들, 지원자들이 심한 가물이 들고있는 여러 지역에서 그 피해막이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전투가 시작된 첫날부터 트락또르, 화물자동차, 달구지를 비롯한 천수백대의 각종 물전기재와 200여대의 원통기가 달린 이동식양수설비들이 가물피해지역들에 집중배치되여 위력을 떨치고있다.

군일군들은 한몸이 그대로 불줄기가 되여서라도 포전에 생명수를 부어줄 결사의 각오로 전투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갔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일군들은 물원천을 적극 찾아내는것과 함께 급수사령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물공급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물주기와 김매기, 후치질 등을 적극적으로 내밀도록 작전을 면밀하게 하였다.

협동법마다 총돌격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타번졌다.

인민군군인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총동원되여 물길의 물통과능력을 높이기 위해 연 200여리나 되는 물길가시기를 단 6시간동안에 해제끼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였다.

자연의 횡포와 인간의 사상과 의지의 대결전이라고 할수 있는 오늘의 가물피해막이전투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조건과 리유란 없다.

이런 결사의 각오로 인민군군인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은 해비침물이 낮고 물기증발이 적은 새벽과 저녁에 배낭식분무기와 농기구를 리용하여 깊은층비료를 주는 방법으로 포기마다 물을 주고있다. 이와 함께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 카리티탄비료, 후민산비료 등으로 잎덧비료주기를 동시에 내밀고있다. 이렇게 하여 적은 량의 물을 가지고 농작물이 한주일동안 가물에 견딜수 있게 하는것은 물든생육에 좋은 영향을 주도록 하고있다.

군일군들은 모든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이 그 우월성과 기술적요구를 잘 알도록 보여주기사업을 실정에 맞게 진행하여 물주기와 잎덧비료주기를 집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고있다.

군에서 관수설비, 운반수단들을 총동원, 총집중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수많은 우물과 굴포, 홈짱, 물주머니, 저류지들이 가물과의 투쟁에 효과적으로 리용되고있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을 지켜섰다는 자각안고 떨쳐나선 군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몸이 그대로 양수기가 되고 물이 되여서라도 협동법에 생명수를 주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는 속에 그 성과가 무쩍 오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각지 당조직들이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대중을 가물피해막이전투에로 추동하는 당정치사업을 기백있게 벌리고있다.

인민군대식정치사업의 위력으로

재령벌안의 당조직들에서

재령벌안의 당조직들도 전투적인 사업기풍을 발휘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이곳 당조직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인민군대식정치사업의 산 모범을 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고있는것이다.

지휘관의 위치와 대중정치사업의 위력

인민군대정치일군들의 사업기풍에서 특징적인것은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고 남먼저 화선에 나가 전격로를 열어제끼며 군인대중을 이끌어나가는것이다.

재령군당위원회에서는 가물피해막이와 관련한 당의 방침을 접수한 즉시 집행대책을 토의하면서 일군들의 위치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오늘의 가물피해막이전투에서 일군들의 위치문제, 이것은 전투의 승패와 잇닿아있는 관건적인 문제이다. 그러면 어디에 정해야 하는가. 인민군대정치일군들처럼 화선의 제일 앞자리에야 한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이런 강조로만 그치지 않았다.

군안의 한 단위 일군이 주관적으로는 대중정치사업을 잘하느라고 했지만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헌신하면서 그들을 이끌지 못하여 전투실적을 미달했을 때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화상회의에서 일군의 위치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일군에 대한 생동한 실례를 들어가며 다시금 강조하였다.

포전에 나가 해설담화를 하면서 대중을 이끌어나간다고 하였지만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지 못했던 그 일군이 받은 충격은 컸다. 화상회의에 참가한 모든 일군들이 전투장에서의 자기 위치를 돌이켜보며 향개를 더 바싹 조이게 되였다.

군당책임일군이 실천의 제일 앞자리에 섰다. 가물피해가 심한 삼지강협동농장 제8작업반에 나가 대중의 앞장에서 헌신하면서 그들을 산악같이 불러일으켰다.

전투장마다에서 울리는 일군들의 《나를 따라 앞으로!》의 힘찬 구령소리와 더불어 군의 가물피해막이전투에서는 날로 큰 성과가 이룩되였다.

당초급선전일군들도 큰 몫

당초급선전일군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이는것은 인민군대식정치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신천군은 선군시대 모범선동원인 우인영동무를 배출한 곳이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이번 가물피해막이전투에서도 선동원들의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도록 하기 위한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가물피해막이전투가 개시된지 얼마후의 일이다. 도락협동농장 제9작업반 1분조 선동원 안명숙동무의 소행자료가 제기되였다.

아침저녁으로 대오의 기수가 되여 내달리면서 대상의 특성과 전투의 어려운 조건에 맞게 참신한 방법으로 선동활동을 벌려 가물피해막이전투에서 높은 실적이 이룩되게 한 소행자료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그의 소행을 선동원들의 활동을 적극 추동하는 좋은 싹으로 여기고 여러 기회를 리용하여 그를 내세워주었다.

그 사업은 군안의 1 200여명 선동원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었다. 가물피해막이전투가 벌어지는 전투장들은 선동원들의 열정적인 선동활동의 활무대로 전변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직외강연강사들과 5호담당선전원들이 최대의 마력을 내도록 하는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당초급선전일군들의 적극적인 역할에 의하여 군의 가물피해막이전투에서는 큰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의 총집중

첨입식, 이것은 인민군대식정치사업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다.

안악군당위원회에서는 첨입식정치사상사업의 요구대로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가물피해막이전투에로 총집중하는것을 전투승리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

군당위원회의 주도세밀한 작전으로 가물피해막이전투가 시작된 첫날부터 읍협동농장과 로암협동농장을 비롯하여 가물피해가 심한 단위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이 총집중되였다. 군적으로 놓고볼 때 10여대의 방송선전차와 1 200여대의 로전방송기재, 근 1천개의 음향증폭식메가폰이 전개되였다.

읍지구에서는 가물피해막이전투에 나가는 전투원들을 대상으로 한 녀맹예술선동대의 선동활동이 활발히 벌어졌으며 군기동예술선동대와 직외강연강사들이 들끓는 협동농장들을 순회하면서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분출시키는 활동을 기세차게 벌리였다.

군계급교양관 강사들의 이동해설강의는 오늘의 가물피해막이전투가 당중앙경사옹위전, 사회주의조국존엄사수전이라는것을 새기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이 분과 초를 혁신과 위훈으로 수놓아가게 하였다.

재령벌안의 당조직들이 인민군대식정치사업의 위력으로 대중을 가물피해막이전투에로 적극 떠밀어나가는것으로 하여 이곳 협동법들마다에서는 전투성과가 날로 확대되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서 전형단위들의 모범을 따라배우자

과학기술결사전으로 당중앙을 옹위하리라

국가과학원 3중3대혁명붉은기 111호제작소 과학자들과 일군들에 대한 이야기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20대의 청춘연구집단으로 첫걸음을 뗀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는 지난 18년동안 조국의 과학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참으로 많은 공적을 쌓았다. 뜻깊은 올해에도 우리 당에 기쁨을 드리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련이어 내놓았으며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서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는 장군님께서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많은 자금을 배려하여 꾸려주신 최첨단연구기지입니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세대는 바뀌고있어도 111호제작소의 과학자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과 맺은 정을 피줄처럼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첨단과학기술성과로 옹위하기 위한 과학기술결사전의 전렬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이들의 투쟁기풍과 창조정신은 오늘날 과학자, 기술자들뿐아니라 과학기술의 힘으로 기적과 신화들을 창조해나가고있는 만리마시대 인간들에게 참으로 귀중한 혁명의 진리, 투쟁의 진리를 가르쳐주고있다.

당중앙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자

온 나라에 소문난 과학자집단인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에서 만리마선구자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의 첫 성과로 내놓은것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지난 1월 12일,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에 111호제작소 과학자들이 찾아왔다.

유명한 111호제작소 과학자들이 온정과학지구에서 수백리나 떨어진 동해기슭의 부두가에까지 왜 찾아왔을가 하는 의문을 안고 수산사업소 일군들은 그들과 마주앉았다. 새로 연구한 물고기선도감시 및 출하체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왔다는 말을 듣고 놀라와하는 일군들에게 과학자들은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우리가 이번에 구축하려고 하는 물고기선도감시 및 출하체계는 배개 랭동저장고들에서 구역별로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그 리력을 분석하여 물고기선도를 감시하고 구역별에 따르는 출하순서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연구집단을 책임지고 나온 공훈과학자이며 박사인 실장 박용진동무로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연해연방 감탄을 터뜨리던 수산사업소 일군들은 과학자들에게 아예 반하다싶이 되여버렸다.

《한마디로 물고기보관과 출하의 과학화, 정보화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랭동저장고와 종합지휘실사이의 모든 자료통신은 무선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산사업소 일군들은 무릎을 치며 어쩔줄 몰라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과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사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으로부터 물고기가공과 공급계통의 정보화수준을 높일데 대한 간곡한 말씀을 받아안았지만 그들은 이렇다할 묘책을 찾지 못한채 전전긍긍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희한한 방도를 안고 과학자들스스로가 찾아온것이였다. 영웅지배인은 진심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오늘부턴 발전잠을 잘것 같구만!》

그러나 그렇게도 기뻐하는 수산사업소 일군들의 진정을 알게 되였을 때 111호제작소 일군들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좀더 일찌기 그 생각을 했더라면, 하루라도 빨리 개발도입했더라면 우리 원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을 드렸을것인가. 사생결단의 각오로 날바다와 싸워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 수산전사들의 투철한 충정심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뒤떨어져있는가!)

누구보다 자책감이 큰 사람은 소장 류성온동무였다.

사실 제작소에서 물고기선도감시 및 출하체계개발을 착상한 사람은 바로 그였다. 지난해 11월 수산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라오르는 동해전역의 여러 수산사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에 접하면서 그는 제작소에서 설계제작한 저전력극소형처리기와 무선송수신처리소자를 핵심으로 리용하여 물고기의 선도를 감시하고 출하순서를 결정할수 있는 이 체계를 착상하였던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미처 관심하지 못한 문제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과정에 순간에 포착하시고 그 해결방도까지 명철하게 가르쳐주시였다는 사실앞에서 제작소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시는 그이의 위대한 사색의 세계에 숨결을 맞추지 못하고 불같은 헌신의 발걸음에 제대로 따라서지 못하는 자신들이 피스러웠다.

그날 소장과 김남진초급당위원장사이에는 이런 말이 오갔다.

《10월 10일까지가 아니라 래양절까지 네개의 주요수산사업소들에 대한 도입을 전부 끝냅시다.》

《이왕이면 날씨가 더워지기 전까지 좀더 당기는것이 어떻습니까?》

《절대찬성입니다. 우리 동무들을 믿고 결사전을 밀립시다.》

곧 도입력량이 현지로 증파되고 필요한 자재보장을 위해 일군들이 떨쳐나섰다.

첫인상부터 남다른 111호제작소 과학자들의 모습은 수산사업소 일군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과학자들은 숙소가 아니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발자취가 력력히 어린 사업소부터 돌아보았다. 신문과 텔레비죤으로만 보아오던 《이채어경》앞에 직접 서고보니 마음이 절로 숭엄해진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였던 못 잊을 3년전 1월 과학지구를 꽉 채웠던 사회주의바다항기가 바로 여기에 시원을 두고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진다고 뜨겁게 말하는 과학자들을 대하면서 수산사업소 일군들은 원수님께서 내세워주시는 과학전선의 기수들이 확실히 다르다고 몹시 감탄했다고 한다.

실장의 지휘밑에 한철, 고명일, 김영태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낮에 밤을 이어 전반적인 체계구성과 무선통신프로그람 등을 하나하나 완성해나갔다.

제일 힘겨운것은 명하 수심℃의 랭동저장고안에 온도, 습도수감부들과 무선수감송신기, 무선신호변환기, 무선신호중계기를 비롯한 수많은 부분품들을 조립설치하는 전투였다. 섬세한 손로동으로 해야 할 작업이여서 장갑도 낄수 없었다.

김현국, 장철남, 박영학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전원선, 신호선도 통통 얼어붙어 조금만 잘못 다쳐도 뚝뚝 부러져나가는 랭동저장고안의 물고기더미속대기에서 뼈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를 의지의 힘으로 이겨내며 말그대로 결사전을 벌렸다. 그렇게 보통 두시간나마 작업을 진행하여 통신시험을 보장하고 랭동저장고밖으로 나오면 오히려 대소한의 맵짠 바깥날씨가 따뜻하게 느껴지군 하였다.

마침내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물고기선도감시 및 출하체계 《항기》가 황금해력사창조의 고향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모습을 완연하게 드러내였다.

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과학의 길이 한걸음의 날바다에서 벌어지는 어로전의 풍랑사나운 항해길보다 몇갑절 더 간고하고 힘겨운 길인줄 똑똑히 알았다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불타는 충정으로 받드는 만리마시대의 과학전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게 되였다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날씨가 더워지기 전까지 이 체계를 여러 수산사업소들에 확대도입하는 일도 결코 쉽지는 않았다. 힘에 부치고 고충이 클 때마다 과학자들은 이 수산사업소들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주 찾으시는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의 최전연이라고 생각하며 분발하여 일떠서군 하였다.

아무런 대가나 보수도 바라지 않고 스스로 찾아와 피땀으로 완성시킨 창조물들을 완벽하게 도입하여 넘겨주는 과학자들의 숭고한 충정의 세계앞에서 바다의 용사들도 뜨거운것을 삼키며 머리를 숙였다. 그들에게 박용진실장은 이야기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제작소에 주신 가르치심대로 연구성과를 현실에 도입하려고 왔을뿐입니다. 원수님께서 또다시 어길 찾아오시여 기뻐하시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이른새벽이면 현지지도표식비로 달려나와 교양마당을 성성껏 쓸군 하는 과학자들, 조전라발이나 우는소리 한번 없는 그들이 언제 잠자리에 들고 언제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고마운 과학자들이 도입을 끝내고 사업소를 떠날 때에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떨쳐나서 눈시울을 적시며 그들을 바래워주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인 물고기선도감시 및 출하체계개발은 착상으로부터 실천까지 단 석달만에 끝났다. 수산사업소 일군들이 물고기를 몇천, 몇만 잡은것보다 더 큰일을 해제꼈다고 감탄하는 111호제작소 과학자들의 이 성과를 두고 꼭 말하고싶은것이 있다.

물고기선도감시 및 출하체계개발은 111호제작소에 맡겨진 과업도 아니며 세계를 위혼드는 핵무기의 개발이나 최첨단기계설비의 개발과 나란히 할 그런 요란한 성과도 아니다. 그러나 당에서 바라고 요구하는것이라면 그것이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심혈과 넋을 깡그리 쏟아붓는 그 고결한 충정심을 어찌 백옥에 비기지 않을수 있으며 그들이 수놓아가는 창조의 하루하루를 과학기술결사전이라는 뜻깊은 시대어에 담지 않을수 있으랴.

당에서 관심하는것이라면 어느 부문, 어느 단위의 일감이든 반드시 당의 뜻대로 과학기술의 눈으로 투시하고 과학기술로 완벽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111호제작소 과학자들의 투철한 관점과 립장,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에 지식과 재능에 앞서 애국충정의 피땀을 깡그리 쏟아붓는 불같은 헌신이야말로 과학자, 기술자들뿐아니라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 누구나 본받아야 할 만리마시대의 창조정신, 투쟁기풍이 아니겠는가.

만리마기수는 어떤 사람들인가

과학기술이 기관차가 되여 모든 부문을 이끌어가고있는 오늘의 만리마시대 과학자들의 실력은 과학자대인의 명성과 발전의 전제이기 전에 사회주의조선의 존엄을 대표하며 우리 조국이 올라설 첨단의 높이를 결정하는 초석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의 두뇌, 우리의 지혜와 재능으로 세계를 더더고 올라서기 위한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의 승리는 다름아닌 과학자들의 실력이 담보해주고있다.

올해에 111호제작소에서 이룩한 연구도입성과들가운데는 인민경제 중요부문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제품검측선별기도 있다.

해당 부문의 의뢰를 받고 어느 한 기계공장에 나갈 때까지만 하여도 이들은 별로 힘들게 생각하지 않았었다. 이미 마스크교정형치수측정기술을 응용하여 그 비슷한 제품검측설비를 개발도입한 경험이 있었던것이다.

하지만 현지에 도착하였을 때 실장 박사, 부교수 김교윤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전문가의 눈으로 이 설비개발의 중요성과 함께 넘기 힘든 고비들을 포착하였다. 과학기술지난도가 높은것은 물론이고 설사 개발에 달라붙는다고 해도 종전같으면 2년이상 걸려야 할 연구대상이였다. 보다 심각한것은 숱한 로동자들이 손로동으로 하고있는 제품검사공정을 현장조건에 맞게 결정적으로 현대화하지 않고서는 주요제품생산량을 시급히 몇배로 늘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과업을 수행할수 없다는것이였다.

차헌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이 새로 개발해야 할 설비에 대한 표상을 가지기 위해 생산현장에 내려갔을 때였다. 한 로동자가 불쑥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연구사선생님들은 여기에 머칠이나 계실 작정입니까?》

처음에는 무심하게 받아들이였으나 참으로 심각한 물음이였다. 후에 안 일이지만 이미 각이한 과학연구기관들에서 적지 않은 과학자들이 나와 여러해동안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지만 누구도 결실을 보지 못하고 떠나갔다는것이였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과학자도 아니고 이제 겨우 30대나 되였을 젊은 과학자들이 떼 할수 있을가 하는 속말도 비껴있는 로동자의 물음이였다.

그날 연구과제를 책임진 김교윤동무의 생각은 참으로 깊었다.

(우리까지 물러선다면?…)

그러나 다음순간 머리를 친 생각이 있었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자기들이 해놓은 연구도입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실 때면 111호제작소는 자신께서 잘 아는 연구집단이라고, 젊고 실력있는 과학자들이 많고 일을 많이 하는 연구집단이라고 어리차레나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 3년전 1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그대로 안으시고 제작소를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간곡히 당부하신것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나는 111호제작소 과학자들이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심장으로 받들고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하여 힘차게 내달려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크나큰 믿음이 실린 그 말씀을 되새길수록 결심과 각오는 더욱 비상해졌다. 당에서 실력가집단이라고 그토록 믿고 내세워주는 111호제작소의 명예를 걸고 기어이 성공하고야말 불같은 열의가 연구집단모두의 심장에 끓어번졌다.

보든것을 우리 식으로, 우리의 두뇌로! 한두사람의 실력으로가 아니라 집단의 실력으로 해내자!

김교윤동무와 렴정호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제천을 쥐고있는 마스크교정형치수측정기술에 의거하여 끝끝내 계획보다 한달이나 앞당겨 측정정확도가 매우 높고 측정속도가 빠른 현대적인 제품검측선별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고야말았다.

높은 실력으로 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은 지난해 평양자라공장에 무인먹이공급기를 개발도입한 기세로 보다 난도가 높은 새로운 형태의 무인원로운반차개발에 진입한 실장 공훈과학자, 박사, 부교수 한무광동무와 리인수, 류주원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속에서도 세차게 벌어졌다. 림승진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혁명사적물영구보존체계 《명백》을 혁명사적부문에 확대도입하는 사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갔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의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의 전위투사, 과학기술결사전의 기수가 되여야 할 우리 일군들의 실력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한다.

111호제작소의 과학자들이 전문분야와는 거리가 먼 휴대용토양수분계에 대한 연구사업을 시작한것은 지난해였다. 멀치않게 보이는 수입산토양수분계의 가격이 너무 비싼것이 과학자들의 자존심을 자극했던것이다. 그러나 역시 개발과정은 헐치 않았다.

과학자들이 휴대용토양수분계개발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은것은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의 잔디밭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였다. 제작소일군들의 관심도 이만저만 아니였다.

어느날 제작소의 책임일군은 해당 부문 일군들과의 상담을 준비하고있던 한 연구사와 마주앉았다. 국산화비중을 높일데 대한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제작소에서 이미 개발한 측정소자를 리용하려는 시도도 좋았고 그때까지 얻은 연구결과로써도 해당 부문의 요구를 만족시킬수는 있었다. 더우기 전공과는 거리가 먼 분야에 대담하게 뛰여들어 그만한 결과를 얻어낸것이 돋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책임일군은 대번에 원리적측면에서 과학적으로 빈약한 문제점들을 발견해내였다.

《과학자라면 과학적원리에 충실해야 하오. 현장의 요구수준이 높지 않다고 해서 대체적인 연구결과를 가지고 적당한 제품을 개발도입한다면 그게 무슨 과학자의 자세이겠소.

동무가 맡고있는 연구과제가 어떤 과제이고 동무가 과연 어떤 곳에서 연구사업을 하는 과학자인가를 깊이 생각해보오.》

김수일동무는 늘 돌고 다니는 자그마한 수첩을 또다시 펼쳐들었다. 거기에는 자기들의 일터에 새겨진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제작소의 자랑스러운 연혁사가 또박또박 씌여져있었다.

그는 새로운 결심을 안고 과학기술전당 홈페지를 통한 문헌조사를 심화시켜나갔다. 과학기술전당은 그야말로 과학기술자료의 바다, 지혜와 착상을 안겨주는 샘이였다. 세상에 들도 없는 이런 훌륭한 과학기술전당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한번 심장으로 느끼며 그는 더욱 긴장하게 연구사업을 다그쳐나갔다. 그때에도 책임일군은 수시로 찾아와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뒤워주기도 하고 확고한 과학적견해를 가지고 새로운 착상을 지지해주기도 하였다.

김수일동무는 끝끝내 토양수분계개발을 위한 과학적원리를 밝혀내고야말았다. 실장 박사 김명길동무의 적극적인 조직사업에 따라 조철진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그는 토양의 수분함량을 정확히 측정할수 있을뿐아니라 사용자들이 쓰기도 편리하고 보기에도 좋은 휴대용토양수분계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자기들이 만든 수심대의 휴대용토양수분계를 금수산태양궁전을 더 잘 꾸리는 사업에 기증하던 그날 과학자들은 소장이라는 직위로가 아니라 누구나 머리를 숙이게 하는 높은 실력으로 제작소의 과학기술결사전을 선두에서 줄기차게 이끌어가고있는 책임일군의 모습을 새삼스러운 마음을 안고 바라보았다. 전자도서실의 열정독자도, 제작소의 기둥감인 청년과학자들이 제일 존경하는 스승도, 중요연구과제를 놓고 열리는 과학발표회에서의 가장 열정적인 론쟁자도 다름아닌 그가 아니였던가.

경애하는 원수님께 큰 기쁨을 드린 혁명사적물영구보존체계를 처음으로 착상한 사람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물고기선도감시 및 출하체계의 첫 제안자도 바로 111호제작소 소장인 인민과학자, 교수, 박사 류성온동무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여주었다.

당의 령도업적이 깃든 과학연구단위를 책임진 무거운 사명감을 안고 피타는 사색과 탐구로 쌓아가는 일군들의 높은 실력은 그대로 제작소의 과학자들모두가 당에서 바라는대로 당정책과 세계적인 과학기술발전추세에 민감한 과학자가 되여야 한다는 강한 요구성이 되고 실력으로 당을 받드는 영원한 청춘연구집단이 되자는 말없는 호소로 되였다. 이렇게 111호제작소의 일군들은 자기들의 실력으로 집단을 만리마시대의 전형단위로 떠받들어올리는 믿음이 되여주었다.

오늘 만리마시대에 살며 투쟁하고있는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실력은 단순한 지식과 재능의 발현이 아니다. 그것은 만사람을 경탄케 하는 특출한 실력으로 우리 조국을 세계의 령마루에로 이끌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진정한 동지, 전우가 될수 있는가 없는가, 창조와 번혁으로 벅찬 오늘의 위대한 시대에 한달음에 만리를 내닫는 만리마를 탈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관가름하는 시금석과도 같은것이다.

111호제작소의 과학자들과 일군들은 과학기술강국건설의 최전방에서 첨단기술산업창설과 지식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확신성있게 열어제끼며 전인민적인 만리마대진군을 적극 고무추동하는 과학기술결사전의 혁혁한 성과들로써 이 고귀한 진리를 증명하였다.

* *

우리의 전세대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전설속의 천리마를 불러내고 《천리마시대의 서사시》를 조국청사에 한자한자 아로새기였다.

오늘 우리 세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들을 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으로 《만리마시대의 서사시》를 긍지높이 써나가고있다. 먼 후날 우리의 후대들은 《만리마시대의 서사시》의 첫 페지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전 앞으로!》의 구호높이 《주체탄》개발의 련속대성공으로 조선로동당의 존엄을 결사보위한 국방과학전사들과 더불어 우리의 주인공들의 위훈을, 만리마시대의 혁명적지식인들이 당과 조국을 위하여 이룩해놓은 과학기술결사전의 대승리가 어떤것인가를 가슴후덥게, 자랑스럽게 읽게 될것이다.

글 본사기자 려명희
사진 본사기자 김종훈

선군봉화상체육경기대회 폐막

【함흥 6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선군봉화상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였다.

경기대회에 참가한 선수, 감독들은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체육신화를 창조하기 위한 혼연일체속에 다지고다져온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능력을 경기마다에서 훌륭히 보여주었다.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함경남도가 종합 1등을, 평안남도, 황해남도가 각각 종합 2등, 3등을 하였다.

폐막식이 6월 30일 함흥경기장에서 진행되였다.

어기에는 김성일 함경남도당위원회 위원장, 김봉영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함흥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와 선수들에게 순회우승컵과 우승메달이 수여되였다.

김일국체육상이 폐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이번 경기대회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워나가려는 체육인들의 굳은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고 전민총돌격전을 과감히 전개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고무추동한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선수들과 감독들이 세계적인 페권자가 될 높은 목표밑에 이번 경기대회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공고히 하면서 혼연에 계속 박차를 가하며 여러가지 경기전법들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금메달의 자랑찬 선물을 안고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7월 2일(일요일)에 전승컵체육경기대회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대동강(주체사상탑앞)에서는 록해운성체육단, 비류강체육단, 송도원체육단 선수들이 참가하는 조정 성인급경기가 진행되며 청춘거리 수영경기관에서는 수산성체육단, 중앙체육학원, 수양산체육단, 와우도체육단 녀자선수들의 수구 1급경기가 벌어지게 된다.

김책수산사업소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김책수산사업소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6월 30일에 진행되였다.

전승훈 함경북도당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사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김책수산사업소 어로공, 종업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김책수산사업소는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이며 동해수산부문의 자력갱생선구자단위이라고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부터 이름난 어장과 항을 끼고있는 이곳에 대규모수산기지를 꾸리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37(1948)년 6월 8일 사업소를 찾으신 때로부터 어려차레나 현지지도하시면서 사업소를 동해의 위력한 물고기잡이 및 가공기지로 강화발전시켜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김책수산사업소의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사업소의 가공모선을 돌아보시면서 먼바다물고기잡이에서 해상지휘체계를 바로세우고 과학적인 어로전을 벌리며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함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주체36(1947)년 7월 1일에 창립된 김책수산사업소가 지난 70년간 당과 수령의 믿음과 사랑에 충정과 의리로 보답하며 위훈으로 빛나는 연혁사를 새겨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사업소의 어로공, 종업원들과 일군들은 백두의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전인불멸의 의지로 사나운 날바다를 헤치며 먼바다어업을 적극 개척하고 300일출어를 어김없이 보장하여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기적의 2016년에 사업소가 수산물생산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면서 먼바다어로작업에 대한 실시간지휘를 실천할수 있는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금동능력을 훨씬 높이였으며 배수리와 정비를 다그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함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김책수산사업소의 어로공, 종업원들과 일군들이 당중앙뜨락에 심장의 피줄을 잇고 자력자강의 정신과 결사의 실천으로 온갖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며 당의 인민사랑의 뜻과 수산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로력적위훈을 세운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김책수산사업소 지배인 허경철의 보고에 이어 기사장 태성률, 1선단장 김경남, 초급청년동맹비서 김광명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수산사업소의 어로공, 종업원들과 일군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 수산물생산 및 가공과 《황금해》호제련의 고기배건조에서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사업소에 깃들어있는 당과 수령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과학수산에 어장의 주인, 어기의 주인이 되는 비결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고기배와 어구, 어로방법과 지휘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정상화하여 어로공들과 종업원들을 지식형근로자로, 어로기술발전의 주인공으로 준비시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지니고 수산자원보호에 힘을 넣으며 바다나물양식과 양어에서 이룩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는것과 함께 생산전문들과 후생시설들을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새모에 맞게 일신시켜나갈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인민군대 수산부문 어로전사들과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수산물생산에서 최고의 실적, 최상의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자들은 이 하늘아래 살아숨쉴 곳이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 련합성명에 접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있지만 그것은 멸망에로 줄달음치는자들의 마지막발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해칠 천인공노할 흉계를 꾸민 특대형국가테로범죄자들을 극형에 처한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 련합성명에 호응하는 천만군민의 목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고있다.

황해북도당위원회 부장 민경만은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해칠 천인공노할 흉계를 꾸민 놈들을 극형에 처한다는것을 밝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 련합성명은 그대로 태양을 중심으로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룬 이 땅의 수령옹위전사들, 태양의 위성들이 터치는 우뢰와 같은 노성이며 멸적의 선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개, 벌레보다 못한 남조선의 박근혜, 리병호놈들, 극악무도한 특대형국가테로범죄자들에 대한 징벌의지로 온 황북땅이 용암마냥 끓고있다.

선군의 기치높이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치는 공화국의 눈부신 기상에 혼비백산한 력사의 죄물들이 하늘이 무서운줄 모르고 어두운 곳에서 바퀴새끼처럼 쌀라닥거리다가 처참한 죽음의 함정을 스스로 팠다.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상대로 생화학물질에 의한 국가테로를 감행할 흉계를 꾸몄던것도 세인을 경악시킬 일인데 《북지도부교체》를 목표로 한 비밀작전계획을 직접 검토, 수표하고 추진한 년놈들이니 극형중에서도 최대의 극형을 가한들 어찌 한이 풀릴수 있겠는가.

우리의 최고수뇌부는 우리 삶의 진부이며 태양을 중심으로 자기의 불변궤도를 따라 도는 이 땅의 천만위성들은 무엄하게도 태양의 빛을 막아보려고 날뛰는자들을 용서한적이 없다. 우리 최고수뇌부에 도전해나서고 감히 수뇌부의 안전을 해치려 하는자들에 대해서는 이 세상 끝에라도 따라가고 천길땅속을 파헤쳐서라도 기어코 찾아내어 머리채를 붙들어다 무자비하게 칼랑처버리려는것이 우리의 단호한 징벌의지이다.

우리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모두가 특대형국가테로범죄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멸적의 의지를 안고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수령결사옹위전,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도안의 당조직들이 오늘의 첨예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신념을 벼려주는 당정치사업을 보다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태양의 위성들이 특대형국가테로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을 무자비하게 박멸하도록 하겠다.

함흥수리동력대학 학장 김영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원쑤들의 최후발악이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수년세월 온 겨레에게 재앙만을 불러오는 못된짓을 일삼다 못해 우리의 운명이고 삶의 진부인 최고수뇌부를 감히 어째보려는 천인공노할 흉계까지 꾸미였다니 이미 민족앞에 늙다리미친 암개로 락인된 박근혜년이 정말 미쳐도 더럽게는 미쳤다.

혁명의 최고수뇌부는 우리 천만군민의 생명이다. 태양이 없는 곳을 생각할수 없듯이 수령을 떠난 우리의 운명이란 있을수 없는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가 그 누구도 감히 범접 못하는 주체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며 약자들앞에서나 힘자랑을 하려드는 제국주의를 눈아래로 굽어보고있는것도 바로 최고수뇌부는 곧 우리의 운명이고 수령의 절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며 승리라는것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인 이 땅의 천만군민이 있기때문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정의와 진리만을 가르쳐주는 교육자의 한사람이다. 세상의 모든 사물현상들을 학생들에게 론리적으로 인식케 해주어야 할 사명과 임무를 안고있지만 우리의 명줄인 위대한 태양을 해치려고 제거품을 내뿜으며 길길이 날뛰는 미친개무리를 때려죽이라고밖에 달리는 말할수 없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자기의 명줄을 물어끊으려고 미쳐날뛰는 놈들을 살려둘수 있겠는가. 온갖 미친짓으로 이 땅에 재앙을 불러오고 전쟁의 불구름만을 몰아오는 그 천하의 악귀들을 용납할수 있겠는가.

그 미친개들이 살아서 날뛰고있는 분분초초가 흐를수록 이 땅에는 온갖 재난들만이 덧쌓일것이다.

독초는 뿌리째 뽑아야 하듯이 천추만대에 씻지 못할 만고대역죄를 저지른 박근혜역도를 비롯한 그 미친개무리가 다시는 이 땅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보조리 찾아내어 즉시에 철저히 소탕해버려야 한다. 평화로운 세상을 위하여서도, 인류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서도 미친개무리를 모조리 찾아내여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때려잡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론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다.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 소장 김룡철도 분격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중앙정보국과 괴뢰국정원 것들이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상대로 생화학물질에 의한 국가테로를 감행할 목적밑에 우리 내부에 침투시켰던 극악무도한 테로범죄일당이 저발된것이 불과 엄마전의 일이다.

이번에 또다시 하늘의 태양도 불과보는 천인공노할 특대형국가테로흉계를 꾸민 사실이 공개된것은 미국과 박근혜패당이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어째보려고 얼마나 피눈이 되여 발악하였는가를 단적하에 보여주고있다.

누구보다 진리를 원하고 과학을 사랑하는 조선의 과학자로서 선언한다.

우리의 첨단생물농약생산기지를 보고 란저군을 만드는 곳이라고 강짜를 부리던 놈들스스로가 인정했듯이 우리에게는 과학기술력량도 그쯘하고 첨단기술도 있으며 산업토대도 든든하다.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과학의 신성한 사명에 언제나 충실하여왔기에 우리는 인류에게 참혹한 재난을 들씌우는 생화학무기개발을 참을수 없는 수치로, 씻을수 없는 죄악으로 여기고있다.

광산일을 헐하게 하는데 이바지한 발명품이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폭탄으로 전락되고 거대한 핵에네르기의 발견이 에네르기문제해결을 위한 평화적목적이 아니라 인류를 멸살시킬 원자탄의 개발로 이어져 인류과학발전사에 얼마나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겼는가.

그 저주로운 력사를 생화학물질에 의한 국가테로행위의 감행으로, 우리 인민모두가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되풀이하려들고있는 특대형범죄자들을 조선의 과학자로서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

천하무도한 어리석은 개꿈으로 스스로 화를 불러오고 극형을 눈앞에 둔 특대형국가테로범죄자들이 천벌을 받기 전에 똑똑히 알아둘것이 있다. 저 하늘의 눈부신 태양을 가리울 힘은 이 지구상에 없다. 이것은 억척불변의 진리이며 과학이다.

중앙계급교양관 관장 김형철은 자기의 격분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감히 《북지도부제거》라니 이 어찌 상상조차 할 일인가.

지은 죄목이 천조항, 만조항이어도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인 최고수뇌부를 노린 이 한가지 특대형국가테로범죄만으로도 천하의 악마인 박근혜년은 이미 오래전에 만인의 규탄을 받고 얼백번 통지처참을 당했어야 한다.

그런데 오라를 지고 극형을 당했어야 할 박근혜역도와 전 괴뢰국정원 원장 리병호일당이 아직도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서 뻐젓이 머리를 쳐들고있으니 어찌 천만군민의 증오와 분노가 활화산처럼 끓어번지지 않겠는가.

《살인악마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리자.》, 《우리의 최고존엄에 도전하는 천하의 극악무도한 악당들을 단호히 징벌하자.》, 바로 이것이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속에서 터져나오는 분노의 웨침이다.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 련합성명에 접한 우리 중앙계급교양관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특대형국가테로범죄행위를 감행한 천하의 살인악마들을 씨도 없이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릴 보복의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죽어도 죄만은 남는다는 말이 있듯이 계급교양의 전초선을 지켜선 우리들은 무엄하게도 우리 운명의 태양에 도전해나선 박근혜와 리병호일당의 특대형국가테로범죄행위에 대하여 만세반미, 만괴뢰교양의 제일 첫페지에 똑똑히 새겨넣고 참관자들에게 역적패당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복수심을 깊이 심어주겠다.

하여 먼 후날 이 땅에서 나서자랄 후대들까지 박근혜일당의 죄행을 영원히 잊지 않고 계급적원쑤들과 끝까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하겠다.

최세의 특등범죄자들인 천하악귀 박근혜와 전 괴뢰국정원 원장 리병호일당은 이 땅에서 살아숨쉴 생각을 하지 말라.

성진제강련합기업소 5월 17일공장 주체철직장 직장장 김금산은 천인공노할 특대형국가테로범죄를 저지른 악당들에 대한 분노로 피가 끓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천하악귀 박근혜년이 집권기간 괴뢰국정원것들과 작당하여 감히 《북지도부제거》작전을 추진하였으니 이 역적패당들과 어찌 한하늘을 이고 살수 있단 말인가. 드러난 사실은 그 무엇으로써도 결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우리를 《굴복》시킬수도 《변화》시킬수도 없다는것을 판단한 적들이 감히 《북지도부교체》에 허황한 기대를 걸고 그 실행을 위해 온갖 비렬하고 잔악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정말 치가 떨리고 이가 갈려 견딜수가 없다.

우리의 최고수뇌부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삶과 운명의 진부이다.

우리 최고수뇌부에 도전해나서고 감히 하늘의 태양을 어째보려고 하는자들에 대해서는 이 세상 끝에라도 따라가고 천길땅속을 파헤쳐서라도 기어코 찾아내여 머리채를 붙들어다 무자비하게 칼랑처버려야 한다는것이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를 생명으로 간주하는 우리 성강로동계급의 단호한 징벌의지이다.

우리의 최고존엄에 도전해나선자들을 죽탕쳐 멸렬 끓는 쇠물가마에 처넣어도 짱이고쌓인 한이 풀릴것 같지 않다.

다시한번 명백히 하건대 불서리치는 특대형국가테로범죄행위를 감행한 원쑤들은 이 하늘아래서 살아숨쉴 생각을 하지 말라.

우리 성진제강련합기업소의 전체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극악무도한 역적무리들에게 보복의 불벼락을 들씌우는 심정으로 주체철폭포를 더욱 힘있게 쏟아낼것이다.

본사기자

치마두른 대결광의 분별없는 망동

현 남조선 《정권》의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된 강경화가 요즘 입을 나불거리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천박한 아낙네처럼 반공화국대결망발을 련일 쏟아내고있다.

강경화는 외교부 장관명거지를 쓰자마자 치마에서 비파소리가 나도록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관과 서울주재 미국대리대사, 미국외교협회 회장 등을 찾아다니며 《북핵대응》을 위한 미국과의 《공조》니, 《북의 핵, 미사일위협》이니 하고 상전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하였다. 그리고 유엔에서 벌어지는 도발적인 《북인권결의안》채택놀음에 대한 저들의 지지립장을 적극 광고하였다. 이것은 괴뢰보수정권의 몰락이후 날로 높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북남관계개선지향과 상반되는것이다.

강경화는 이미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야당들이 자기의 각종 부정부패의혹들을 물고늘어지며 사퇴까지 강박하자 곤경에서 헤어나기 위해 《북핵문제를 최우선과제》로 다루어야 한다느니, 《추가도발에는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느니, 금강산관광중단과 개성공업지구폐쇄는 《모두 북의 도발행위의 결과》라느니 하며 자기의 알량한 《안보관》을 과시하여 없은 점수를 따보려고 덤벼쳤었다.

이것만 놓고서도 외교부 장관직에 현혹되여 보수페거리들의 비위를 맞추며 시작부터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강경화의 더러운 속통에 대해 잘 알수 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현 집권세력이 극단적인 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박근혜역적패당의 반민족적죄악에서 교훈을 찾고 동족과 힘을 합쳐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런데 현 남조선당국의 첫 외교부 장관이라는 강경화는 그에는 아랑곳없이 우리를 걸고드는 악담질을 그칠새없이 해대면서 어기저기를 정신없이 돌아치고있다. 년의 이런 추태는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되여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바라는 남조선의 초불민심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매일같이 대결악담을 불어대는 강경화의 망동과 관련하여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돌아치던 전 괴뢰외교부 장관 윤병세역도의 표락시니를 그대로 련상케 한다고 비난하고있다. 그야말로 년의 망동은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압살책동에 광분하다가 력사의 무덤속에 처박힌 선임자들도 허물 할 지경이다.

리명박과 박근혜역도의 집권기간 반공화국적소동과 《인권》모략의 앞장에서 제일 못되게 놀아댄것이 바로 괴뢰외교부패거리들이였다. 이자들은 수치와 창피도 모르고 밤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외세를 찾아다니며 우리를 악의에 차서 헐뜯고 《대북압박공조》를 끈덕지게 간청하였다.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외세에 빌붙으며 동족을 해쳐달라고 구걸과 청탁으로 날과 달을 보낸 이런 쓸개빠진 대국노들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치욕을 당하고 북남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였으며 조선반도의 긴장상태가 극도로 고조되였다.

그런데 초불항쟁에 의해 출현했다고 하는 현 남조선 《정권》의 외교수장인 강경화는 적폐청산과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민심의 지향에 서슴없이 역행하면서 마치 자기의 반민족적인 《안보관》을 과시라도 하듯 우리에 대해 심히 못되게 놀아대고있다. 그것이 임기 전기간 대결미치광이로 악명을 떨친 윤병세역도의 추태와 무엇이 다른가. 하기는 반기문과 같은 괴수친미분자를 숭상하는 년이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구멍을 봐가며 말뚝을 깎는다는데 대세도 모르고 무작정 미국상전의 장단에 춤을 추며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리는 강경화의 몰골은 실로 역겹기 그지없다.

무더무더 이런 엄간망동이에게 외교부 장관감투를 씌운 현 남조선당국자도 문제이다. 강경화를 전마잡이로 앞세운 그의 미국행각이 어떤 추한 꼴로 비쳐지겠는가 하는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매번없이 독설만 내뱉는 남조선당국자들의 그 불쌍사나운 입이 바로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근원이다.

강경화는 자기의 불순한 언동이 어떤 화를 불러오게 될것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입건사를 바로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외세와의 짝자꿍이로 우리를 압살하기 위해 아무리 날뛰어도 치레질것은 민족의 저주와 규탄, 국제적망신뿐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초불민심이 항상 자기들을 주시하고있다는것을 잊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허영민

악취풍기는 오물더미인 극우보수단체들을 철저히 매장해버려야 한다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담화

최근 남조선에서 천하악녀인 박근혜역도의 과면과 함께 봉피위기에 처해있는 극우보수단체들에 대한 각계층의 저주와 배척기운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 극우보수단체들은 권력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역적패당의 반역정책을 정당화하고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며 무지막지한 짱패짓도 서슴지 않았다.

역적패당의 《싸드》배치책동과 《세월》호참사, 백남기농민사망 등 주요사건때마다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대중적진출을 악랄하게 시비질하고 흉기까지 들고나와 란동을 부리며 살인까지 일삼은 《자유총련맹》이요, 《박사모》요 하는 떨거지들의 반역행위는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인 초불항쟁때 맞불집회를 벌리며 역도를 과멸에서 건져보려고 비렬하고 악랄하게 반기를 들고나섰던 무리들도 바로 《대통령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운동본부》니, 《엄마부대》니 하는 어중이떠중이 보수단체들이였다.

특히 극우보수단체들은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으며 《친북좌파척결》소동에 광분하는 등 반공화국대결소동을 일으키는데서도 누구보다 박근혜역도의 손발이 되여 역적질을 일삼았다.

민심에 악랄하게 도전하여 온갖 란동을 일삼던 극우보수단체들이 지금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의해 적폐청산대상이 되여 해체될 위기에 처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사실 극우보수단체들의 극악무도한 행위는 청와대의 떳떳치 못사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권력미치광이이며 천하의 음모군인 박근혜역도의 지시와 조종에 따라 감행된 조직적인 범죄행위였다.

박근혜역도는 심각한 통치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보수단체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나서야 한다.》, 《좌파단체의 친북, 반정부행동에 맞서는 전투에 대비하라.》고 고아대면서 보수단체들에 《응동원령》을 내리고 해마다 대기업들로부터 뜯어낸 수백만US$의 막대한 자금을 대주면서 보수단체들을 《관제데모》에 내몰았다.

천하의 인간쓰레기들인 보수떨거지들은 그들대로 청와대가 던져주는 돈을 더 많이 타먹겠다고 서로 개싸움을 벌리면서 살기등등하여 민심을 모독하며 갖은 악행을 다 저질렀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과 관련한 재판과정에서 《자유총련맹》, 《박사모》, 《조갑제닷컴》을 비롯한 극우보수단체들이 청와대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아먹고 박근혜심판투쟁에 떨쳐나선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비렬한 흑색공세를 감행해온 사실들이 련속 드러나고있는것은 박근혜역도와 극우보수단체들은 더러운 한몸뚱이라는것을 더욱 낱낱이 고발해주고있다.

한줌도 못되는 이런 돈벌레들, 치매든 늙다리광패들, 대결광신자들이 바로 박근혜역도가 그처럼 의지하던 《콩크리트지지세력》이였다.

인간의 량심과 체면을 줴버리고 권력과 먹이감만을 좇던 보수떨거지들이 역도의 파멸과 함께 밤톨이 떨어져 바퀴새끼들처럼 제 살구멍을 찾아 흩어져버리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추악한 보수단체들의 와해붕괴는 사대매국과 동족대결망동,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으로 더러운 목숨을 부지해가던 인간추물들에게 차례진 응당한 결과이다.

극우보수단체들이 기울어져 가는 저들의 운명을 건져보겠다고 《보수의 재결집》이니, 《보수가치의 재정립》이니 뭐니 하며 그 무슨 《재생》과 《부귀》에 대해 개꿈을 꾸고있지만 그것은 산송장들의 가소로운 망녕에 지나지 않는다.

악취풍기는 오물은 제때에 매몰해버려야 한다.

내외의 경악을 자아낸 특대형범죄사건의 주모자들인 박근혜, 최순실일당뿐아니라 극우보수단체들의 추악한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인 행적과 죄악의 진상도 이번 기회에 낱낱이 밝혀내야 하며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민심의 버림과 배척을 받고 시궁창에 처박힌 극우보수떨거지들이 다시는 독버섯처럼 돋아나지 못하게 영영 매장해버리기 위해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6월 30일
평양

미국의 《싸드》강행배치와 환경오염범죄를 규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6월 24일 남조선의 폭색련합, 용산미군기지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을 비롯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싸드》를 강행배치하고 용산지역을 최악의 환경오염지대로 만든 미국을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용산미군기지주변에서 가진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싸드》가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킨다는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조선반도뿐아니라 동북아시아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라고 하면서 현 《정부》가 《싸드》문제와 용산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를 똑바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미국당국자회담을 앞둔 현 《정부》에 국민이 하고싶은 말은 초불혁명을 입은 국민들을 밟아야 정화와 통일의 초석을 다져나갈수 있다는것이라고 그들은 지적하였다.

그들은 불평등한 남조선미국관계를 잘장내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는 미국이 책임질것을 요구하였다.

용산과 평택, 성주에도 주민들이 살고있지만 미군기지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여 살아가기 힘들다고 하면서 환경오염실태를 정확히 밝히는데 힘을 넣을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용산미군기지를 되찾아 진정한 국민들의 공원으로 만들자고 호소하였다.

집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용산의 거리들을 돌며 《싸드배치반대, 용산미군기지환경오염 진상규명, 환경오염미군 규탄》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미군기지까지 시위를 벌리였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당국의 억압에 항의

얼마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이전 교원이 복직을 가로막는 괴뢰법무부와 경상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는 경상북도 상주시에 있는 상주녀자상업고등학교에서 교원으로 있던 1990년 4월 녀교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기부금모으기 등에 항거하였다는 리유로 학교재단의 리사장에 의해 해고되였다 한다.

그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그날의 해고조치의 부당성이 밝혀졌다.

당시 피해자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심의위원회는 그를 특별채용할것을 경상북도교육청에 2차례에 걸쳐 권고하였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해직교원의 특별채용은 사례가 없다.》느니 뭐니 하는 부당한 구실을 붙여 거부하였다.

괴뢰법무부당국도 복직문제는 사립학교와 도교육청이 자체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하면서 도교육청의 처사를 비호해나섰다.

이에 항거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를 특별채용한 실례는 얼마든지 있는것만큼 도교육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는 도교육감이 애초에 특별채용할 의지가 없는데로부터 완전히 무시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는 교육부도 이에 대해 책임질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룡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사죄를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참세상》에 의하면 남조선의 룡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가 6월 26일 서울에 있는 괴뢰경찰청앞에서 2009년 과쇼경찰이 감행한 룡산철거민학살만행의 진상규명과 사죄,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경찰이 인권에 대해 말하려면 룡산참사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사죄하며 책임있는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찰이 절발림식으로가 아니라 룡산참사와 쌍룡자동차사태를 비롯한 폭력의 희생자, 피해자들에게 먼저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룡산참사당시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만행사건의 두목들이 그 《공로》로 승급한데 대하여 그들은 성토하였다.

단체는 룡산참사를 경찰의 인권침해행위의 대표적사건으로 기록하고 재조사를 통해 책임있는자를 처벌할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괴뢰경찰에 들이댔다.

2017년 《이르띠스끼예 조리》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2017년 《이르띠스끼예 조리》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6월 30일 귀국하였다.

금메달을 쟁취한 김국화, 박유정선수들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까자흐스딴에서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우즈베끼스딴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남, 녀선수 120여명이 참가하였다.

탄력망체조경기에 출전한 우리 나라 선수들은 경기에 련마해온 높은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금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쟁취하였다.

김국화선수는 성인급 녀자개인경기에서, 박유정선수는 청년급 녀자개인경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각각 1위를 하였다.

성인급 남자개인경기에서는 김윤성선수가, 청년급 녀자개인경기에서는 김유정선수가 각각 3등을 하고 동메달을 받았다.

평양역에서 관계부문 일군들과 가족들, 체육인들이 선수, 감독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도착

오사까조선고급학교 교장 윤성진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6월 3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 도착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율라지미르 이싸꼬브 중앙위원회 1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이 6월 3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정영원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가 맞이하였다.

강원도전쟁로병보양소 준공식 진행

강원도전쟁로병보양소가 새로 일떠섰다.

동해명승 시중호의 경치좋은 곳에 건설된 보양소에는 치료실, 운동실, 오락실을 비롯하여 로병들의 건강치료와 문화정서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준공식이 6월 29일에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과 전쟁로병들, 건설자들, 보양소종업원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준공식을 박정남 강원도당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로병들을 민족의 장한 영웅, 진정한 애국자들로 값높이 불러주시며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전쟁로병보양소가 희한하게 일떠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언제나 전쟁로병들의 건강과 생활을 유친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며 피로써 조국을 지킨 은인으로, 혁명의 계승자들의 교양자로 존경하며 내세워주고계신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로병들을 위한 보양소를 건설할것을 직접 말기하시고 건설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필요한 대책을 다 세워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긴 건설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집단적혁신으로 보양소를 훌륭히 일떠세웠다고 그는 말하였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해직교원의 특별채용은 사례가 없다.》느니 뭐니 하는 부당한 구실을 붙여 거부하였다.

괴뢰법무부당국도 복직문제는 사립학교와 도교육청이 자체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하면서 도교육청의 처사를 비호해나섰다.

이에 항거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를 특별채용한 실례는 얼마든지 있는것만큼 도교육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는 도교육감이 애초에 특별채용할 의지가 없는데로부터 완전히 무시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는 교육부도 이에 대해 책임질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그는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인 전쟁로병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는 기풍을 더욱 높이 발양하며 보양소의 종업원들이 당에서 아끼는 전쟁로병들을 친자식의 심정으로 돌봐주어 그들이 보양생활기간에 자그마한 불편도 없이 즐겁고 유쾌한 나날을 보내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원도정신창조자답게 전민총돌격전의 맨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떳떳이 들어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보양소를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의 승리는 영원하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김정은동지에 대한 조선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심의 표시이며 그이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전체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이것은 에짚트민족진보통일련합당 위원장이 보내여온 축전의 한 대목이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것은 사회주의조선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국가로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력사적인 사변으로 된다고 하면서 걸출한 위인을 모신 해양조선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확신하는 축전과 축하편지들을 수많이 보내여오고있다.

베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 련방정치비서국 총조정자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심으로써 조선에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틀어쥐고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며 선대수령들의 혁명력사를 영원히 계승해나갈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김정은동지께서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것은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의지이며 그이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존경의 표시이다, 또한 김정은동지께서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으로 된다고 격찬하였다.

로씨야 씨브페호 유한책임회사 사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의 승리의 전통은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이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업의 계승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훌륭히 실현해나가고계신다.

세계정치문제들에 대한 김정은동지의 정당하고 원칙적이며 자주적인 립장은 세계지배를 노리고있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배격하고 복리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진보적인류의 지향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이 어려운 환경과 시련속에서도 자기의 신념과 의지에 따라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한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강력한 핵억제력을 지닌 핵강국으로 전변된데 대하여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고있다.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은각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은 평화와 독립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되고있다.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을 떨치며 전례없는 경제적진보를 이룩함으로써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뚜렷이 실증하게 될것이다.

파키스탄주체연구회 회장은 김정은각하께서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심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완전승리와 사회주의조선의 무궁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고 하면서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 ※

이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는 최강의 무기, 일심단결의 위대한 힘으로 나라의 존엄과 불패의 위용을 떨쳐가는 주체조선에 대한 경탄의 목소리가 외국의 벗들속에서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몽골인민혁명당대표단 단장에, 에르데네쟈미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에는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최강의 정치사상적무기가 있다.

그것이 바로 김정은각하의 두리에 전체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이다.

이 혼연일체의 위대한 힘이 있어 조선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봉쇄책동속에서도 통쾌한 련전련승만을 안아오고있다.

조선의 일심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다.

무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며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은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라몬 히메네스 로페스는 일심단결, 이는 김정은각하를 높이 모신 조선의 모습, 조선의 긍지, 조선의 힘이다, 오늘 조선인민은 이 거대한 위력으로 세인을 경탄시키며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천출위인을 모시여 조선은 온 세상에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다고 토로하였다.

이란이슬람교련합당대표단 단장 세예드 메흐디 쏠라이는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 105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를 보며 조선의 단결력이 얼마나 위대한것인가를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만사람을 경탄시킨 열병식과 군중시위는 참으로 대단하다.

김정은각하를 우러르며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에서 령도자에 대한 조선인민의 열렬한 신뢰심을 느낄수 있었다.

이런 감동적인 화폭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령도자는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은 령도자를 굳게 믿고 따르는 여기에 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의 원천이 있다.

온 사회의 일심단결이라는 최강의 무기로 조선은 이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였으며 오늘은 강성번영의 세시대를 열어가고있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의 승리는 영원하다.

【조선중앙통신】

천추에 용납 못할 망발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수수방관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6월 21일 일본의 이시까와현 지사 다니모또 마사노리라는자가 우리의 체제를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우리 인민의 생존권을 전면거부하는 극악한 민족배타주의적망언을 늘어놓았다.

이자는 《식량을 차단하여 북조선국민을 굶겨죽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는가 하면 우리의 자위적조치에 대하여 《북조선의 처사는 폭거를 조월하고있다.》고 함부로 줴쳐댔다. 그러고도 성차지 않아 《북조선국민들이 아픔을 느끼는 제재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도전적인 망언도 서슴없이 내뱉았다. 이자는 이튿날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사죄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 《체제가 붕괴되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또다시 뇌까렸다.

그가 입에서 뱀이 나가는지 구렁이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짖어댄것은 세기를 이어 조선민족을 기어이 말살하려는 일본의 야수적본성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에 대한 대량학살을 공공연히 주장하는것으로서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대미문의 폭언이다.

현지사라는자가 내뱉은 악담은 《세계지배론》을 부르짖으며 다른 민족을 힐뜯고 유태인사냥을 주도하여 파쑈료형리로 악명떨친 히틀러도 무색케 하는 인간증오사상이 골수에 꽉 들어찬 파쑈살인마가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것이다.

하기에 일본의 한 변호사도 이번 사건을 두고 《나치스도이췰란드가 아무리 잔혹했다 해도 〈국민을 굶겨죽여도 된다.〉고는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였다.

다니모또의 망언은 또한 간또대지진때 조선사람들을 마구 죽여도 일없다고 줴쳐대면서 조선인학살에 미쳐날뛰던 일제살인마들을 방불케 하고있다.

과거 일본이 조선사람들을 짐승처럼 칼과 참대창으로 찔러죽였다면 오늘날에는 미국의 반공화국핵동에 편승하여 우리 공화국의 당당한 자주권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빼앗아 우리 인민을 고립질식시키려 하고있다.

일본정부의 우두머리들부터가 조선민족에 대한 병적거부감을 체질화하고있는것이 문제이다.

일본제무상 아소가 미제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우리의 핵억제력을 걸고들며 《상식도 없는 나라》니 뭐니 하고 입부리를 망탕 놀려댄것도 불과 얼마전의 일이다. 일본정부의 요직에 들고앉은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자위적조치들을 걸고들면서 입부리를 마구 놀려대고있으니 한개 현지사나부랭이까지도 극단한 민족배타주의적망언을 늘어놓고있는것이다.

불상식하고 반인륜적이며 도덕성이 결핍된 일본정객들의 망언은 극단한 민족배타주의와 변함없는 조선민족말살정책의 발로이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일본의 각계에서도 항의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어느 한 대학의 정치학교수는 《굶겨죽인다는 말은 상대를 인간이 아니라고 보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말》이라고 하면서 정치가라는 사람의 입에서 그러한 발언이 나오는것은 매우 위험한것이라고 규탄하였다.

일본은 지난 세기에 우리 인민에게 형언할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도 아직까지 과거청산도 하지 않고있는 우리의 천년숙적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일본정객들은 죄를 덧쌓는 악행을 삼가하고 허바탁건사를 잘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박 예 경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빠리국제회의 진행, 최종선언 채택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빠리국제회의가 6월 24일 프랑스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장에는 선군의 기치밑에 날로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선전물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와 단마르크, 룩셈부르그, 벌가리아, 쭐스까, 벨지끄, 스위스, 핀란드, 영국, 아일랜드, 아이띠 등 여러 나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대표들, 프랑스의 각계인사들, 프랑스주재 우리 나라 총대표와 조선대외문화련락위원회대표단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먼저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의 기조보고에 이어 발언들이 있었다.

보고자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련대성운동이 세기와 년대를 넘어 세계적판도에서 계속 활발히 벌어지고있는데 대하여서와 미국의 악랄한 침략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핵무력강화의 정당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오늘의 현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해가시는 김정은각하께서 제시키여 조선인민은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이룩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 핀란드조선협회 서기장,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서기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업적을 칭송하고 진보적인류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낼것을 호소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기적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는데 대해 소개하고 조선인민이 거둔 성과와 경험들은 우리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본보기이다, 각국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은 자기 나라 인민들에게 조선의 현실을 똑바로 알려주는 한편 조선인민과의 친선과 뉴대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고 말하였다.

회의에서는 최종선언이 채택되였다.

선언은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이 조선반도에서의 외국군대철수와 미국의 대조선제재철회, 서방언론들의 그릇된 선전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추동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으로부터 서로의 협력을 강화하며 여기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해나갈데 대하여서도 밝혔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회의가 끝난 후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시위가 빠리의 쏘르본광장에서 있었다.

시위자들은 우리 나라 기발을 휘날리면서 남조선에서의 《싸드》배치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의 중지, 남조선주둔 미군철수를 요구하며 대조선적대시책동을 규탄하는 구호들을 웨쳤다.

한편 조선반도문제와 관련한 프랑스학계인사들의 토론회가 6월 23일 쏘르본종합대학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정학적위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 및 대학간 교류》 등 제목들로 니스종합대학 교수를 비롯한 저명한 학자들이 발언하였다.

수감자학대행위를 폭로

미국의 AP통신이 최근 예멘에서 감행되고있는 미군의 수감자학대행위를 폭로하였다.

통신은 미군이 예멘의 남부지역에 설치해놓은 많은 비밀감옥들에서 수감자들을 형틀에 매달아 불로 《구이》를 하고 모두데를 인기다 못해 성고문을 들이대는 등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고문을 가하였다고 까밝혔다.

지어는 수감자들의 온몸에 배설물을 발라놓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통신은 이 모든 추악한 행위들이 당국의 묵인하에 감행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통신은 예멘과 미국내에서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가고있다고 전하였다.

로씨야대통령 군사력을 더욱 확대강화할것이라고 확언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최근 군사교육기관 졸업생들과의 상봉석상에서 로씨야는 침략자들의 있을수 있는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군사적잠재력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강화해나갈것이라고 확언하였다.

그는 오직 현대적이며 강력하고 기동적인 무장력만이 그 어떤 침략자의 공격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적완정을 보장할수 있으며 그리고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로씨야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세력들의 압력과 위협공갈로부터 나라를 지켜낼수 있다고 언명하였다.

최근 몇해동안 로씨야군대는 현저히 강화되고 군관들의 직업적자질도 높아졌는데 이것은 수리아에서의 반테로작전에서 힘있게 과시되였다고 그는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각 병종, 군종의 균형적이며 체계적인 사업을 보장하는 장기계획들에 기초하여 륙군과 해군의 전투잠재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투훈련의 질과 집중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할것이라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반이스라엘투쟁을 강화할것을 호소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6월 26일 한 모임에서 연설하면서 반이스라엘투쟁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이슬람교세계에서 초미의 문제로 되고있는 팔레스티나문제가 무시되거나 잊혀질수 있다는데 대해 경종을 울리면서 그는 모든 이슬람교나라들이 분렬을 막고 팔레스티나문제를 축으로 하여 단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슬람교도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하여 유태복고주의정권과 싸워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마다가스까르에서 독립절 기념

마다가스까르에서 6월 26일 독립 57돐을 기념하였다.

수도에 있는 마하마시나경기장에서 전통적인 열병식이 진행되였다. 열병식에는 약 2 600명의 군인들이 참가하였다.

이날 대통령궁전에서 독립절경축연회가 있었다. 연회에서 연설한 대통령 헤리 라자오나리맘피아니나는 전체 인민이 힘을 합쳐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이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살인범죄성행

미국에서 살인범죄가 성행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시에서 얼마전 하루밤사이에 5건의 총격사건이 일어나 8명의 사상자가 났다.

시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159건의 살인범죄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또한 일본의 나라현에서 최근 한 남성이 태여난지 5개월밖에 안되는 자기 딸을 벽에 내동댕이쳐 살해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한편 6월 15일 도이췰란드의 쮸린히아주에서는 아버지가 어린 자식들에게 칼부림을 하여 2명을 죽이고 1명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회적도덕관계가 붕괴되고 인간이 무례변질되여 혈육간에 죽일내기를 하는 썩어빠진 자본주의세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과학기술소식

어느 한 나라의 연구집단이 값싸고 유연한 합성수지전동기를 개발하였다.

새로운 전동기는 낮은 온도에서 끓는 아세톤 등을 액체상태에서 작은 주머니에 넣고 밀봉한것이다. 전열선에 의해 주머니가 더워지면 액체가 기화, 팽창되여 주머니의 량쪽이 들리우면서 구동력이 생긴다. 가열을 멈추면 다시 액체상태로 되면서 전동기는 원래모양으로 돌아오기때문에 반복적으로 사용할수 있다고 한다.

전동기는 길이가 약 80㎜, 너비가 약 25㎜이며 무게는 3g정도이다. 연구집단은 이 전동기를 리용하여 곤충이나 식물을 모방한 로보트 등을 만들고있다. A4용지크기의 전동기의 경우 공업분야뿐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도 리용할수 있다고 한다. 연구집단은 앞으로 가열방식을 연구하여 동작속도나 출력을 높이려 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볼리비아에서

볼리비아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6월 26일 국제마약금지의 날에 즈음하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오만한 처사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마약반대투쟁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시비한것과 관련하여 미국은 남을 탓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였다.

미국내에서의 코카인람용률은 세계적인 평균수치에 비해 4배나 더 많다고 폭로하면서 그는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구실로 써먹고있다고 까밝혔다.

잠비아에서

잠비아대통령 에드카르 룬구가 6월 21일 나라의 경제발전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지난 시기 정부가 내세운 경제발전계획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여 경제장성률이 평균 6.5%에 이르렀다고 언급하면서 포괄적인 경제장성을 이룩하는데 목적을 둔 새로운 계획수행에 착수할것을 선포하였다.

그는 경제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 심각한 빈궁문제를 해결하고 수입에서의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수리아에서

수리아정부군이 6월 24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로골적인 테로지원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성명은 이날 이스라엘군이 수리아의 꾸네이트라도에 있는 정부군진지를 목표로 어려기의 로케트를 발사하여 25명의 민간인들을 살해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정부군이 테로분자들의 공격을 격퇴한 시기에 벌어진 이번 로케트공격사건은 이스라엘이 테로단체들을 지원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인디아에서

인디아외무상 쑤쉬마 스와라즈가 최근 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집권자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강력히 배격하였다.

트럼프가 얼마전 인디아정부가 기후변화문제에 관한 빠리협정에 서명한 목적이 그 무슨 해외원조를 받으려는데 있다고 비난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튿사실과 맞지 않는 궤변으로 락인하였다. 인디아정부는 그 어떤 압력을 받거나 돈을 위해 이 협정에 서명한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는 그러한 주장을 전면배격한다고 강조하였다.

벨지끄에서 반미시위

외면하지 말아야 할 지구온난화방지사업

오늘 날로 심화되는 지구온난화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현재 남극대륙과 그 주변지대에서 이끼류의 생장속도가 4~5배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남극이 매우 빠르게 록색화되고있는것이다. 지난 시기 얼음으로 뒤덮인 세계로 인식되여왔던 남극에서의 록색화는 지구온난화가 커다란 생태변화를 가져오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북극에서도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있다. 노르웨이의 최북단에 위치하고있는 쓰발바르제도의 한 섬에는 세상사람들이 《마지막식량창고》라고 부르는 세계종자저장고가 있다. 지구상의 진귀한 알곡종자들을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파괴에 의한 사멸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인류의 식물공급안전을 담보하는것을 목적으로 건설된 저장고에서 지난해말 사고가 발생하였다. 저장고입구로 많은 량의 눈석이물이 흘러들었던것이다. 당시 섬의 평균기온이 례년보다 높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북극에 있는 동토지대의 암반우에 건설된것으로 하여 그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끄떡없다고 간주했던 저장고까지도 지구온난화에 의한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구온난화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실례에 불과하다.

최근에만도 지구온난화가 인간생활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수많은 분석자료들이 발표되였는데 모두 부정적인것들뿐이다.

어느 한 나라 연구소의 최신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구온난화가 바다결층과 깊은 층사이에서 순환하는 물량을 대폭 감소시키는 경우 깊은 바다물속의 산소함량이 줄어들어 생물들이 죽을수 있다고 한다. 원래 겨울철에 찬바람이 불면 바다겉면이 차지는데 찬 바다물은 깊은 층의 바다물과 함께 순환하게 된다. 이때 결층에 있는 매우 많은 량의 산소도 깊은 바다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바다겉면이 별로 차지지 않기때문에 이러한 순환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있다. 결국 깊은 바다물속의 산소함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곳에서 서식하고있는 바다생물들이 생존위기에 직면할수 있다.

2007년에 유엔은 2050년에 온도가 2℃이상 올라가는 경우 지구상의 생물가운데 20~30%가, 2080년에는 대부분의 동식물이 멸종되고 련쇄적으로 생태계파괴현상이 일어날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지구온난화는 경제분야에도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주고있다.

농업분야만 놓고보아도 가물과 폭우 등 이상기후현상들이 빈번히 발생하여 세계식량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또한 지구의 광극과 세계 여러 지역의 영구동토대들에서 얼음이 계속 녹으면서 바다물면이 높아지고있다. 방글라데슈와 같이 해발고가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있는 나라들에서는 벌써부터 물면상승으로 많은 면적의 밭과 살림집구역들이 류실 및 침수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인해 현재 세계경제는 해마다 1조 2 000억US$의 손실을 보고있는데 2030년에 그것이 2배로 늘어날것이며 2100년에는 세계인구의 절반이상이 식량난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속에서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전쟁에 의한 피해를 릉가할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보는바와 같이 지구온난화는 시시각각으로 인류의 생존과 문명발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지구환경을 보호하는것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사활적요구로 나서고있다.

하기에 세계의 대부분 나라들이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환경파괴라는 재난에서 구원하는 사업에 발벗고나서고있다.

2015년 12월에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빠리협정에 190여개 나라가 서명한것은 그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1997년의 교또의정서를 대신하는 이 협정은 각국이 협력하여 지구온난화를 산생시키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의 방출량을 대폭 줄임으로써 2100년까지 지구평균기온을 공업화이전수준보다 2℃이상 오르지 않게 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온실가스방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득불 화석연료에 의거하고있는 현재의 산업구조를 개조하는 등 많은 자금이 지출되여야 한다. 많은 나라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지구온난화방지사업을 위해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립장들을 표명하고있다.

지구온난화방지사업에 너도나도 뛰여드는것은 막을수 없는 흐름으로 되였다. 그러나 미국만은 반대로 이에 도전해나서고있다. 얼마전 미국은 자국의 리익을 운운하며 전세계가 중시하는 빠리협정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그때문에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개탄리듯 하고있다. 응당한 대접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오늘 그 방지사업을 외면하는것은 그야말로 반인류적인 행위라고 할수 있다.

본사기자 안철권

국제적분노를 자아내는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

이스라엘이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에 계속 광분하고있다.

현재 꾸드스에는 이스라엘이 비법적으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쓰고사는 유태인들이 수없이 많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이스라엘은 지난 1월 하순에 동부꾸드스에 560여동의 살림집을 새로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스라엘은 새 살림집건설을 위해 팔레스티나인살림집들을 마구 허물어버리였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이스라엘은 160여동의 팔레스티나인살림집을 허물어버렸다고 한다.

꾸드스에 유태인정착민들이 득실거리면서 비정상적인 사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있다. 유태인정착민들은 동부꾸드스에 있는 알 아크사사원을 장악하기 위해 기회만 있으면 사원에 무단침입하여 팔레스티나인들을 마구 내쫓고 그들의 출입을 가로막아나서고있다. 지어는 사원안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게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가하는 만동도 서슴지 않고있다. 이스라엘당국은 이를 묵인하고있다.

동부꾸드스는 팔레스티나인들이 앞으로 창건할 독립국가의 수도로 선포한 도시이다.

이스라엘이 이 도시에서 팔레스티나인거주지역을 대폭 줄이는것과 함께 유태인정착촌을 계속 확장하고 알 아크사사원을 통제하려는것은 바로 도시를 유태화하여 팔레스티나인들의 독립국가창건의지를 꺾어버리고 팔레스티나의 전령토를 영구강점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스라엘당국자들은 꾸드스가 이스라엘의 수도로 되여왔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앞으로도 이 도시가 저들의 수도로 될것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

최근에 이스라엘은 요르단강서안지역에 3 000여채의 살림집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의 전령토를 영구강점하기 위해 발광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로 하여 많은 팔레스티나인들이 불행을 당하고있다.

이스라엘당국의 가혹한 탄압조치에 의해 동부꾸드스에 살고있는 약 31만 2 000명의 팔레스티나인들중 대부분이 보건, 교육 등의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빈궁속에 빠져들어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겪고있다.

이스라엘은 유태인정착촌확장과 봉쇄책동 등에 항거해나서는 팔레스티나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있다. 지어 무고한 사람들을 총으로 쏘아죽이는 살인만행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지난 6월 20일 이스라엘군은 강점한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라말라호시부근에서 죄없는 청년을 총으로 쏘아 무참히 살해하였다. 6월에 감행된 살인만행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여러차례나 된다. 동부꾸드스와 가자지대에서 여러명이 이스라엘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되고 부상당하였다.

이스라엘의 무분별한 령토팽창책동은 중동평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념원과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국제사회가 우려와 분노를 표시하고있다. 지난해말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정착촌합법화책동을 반대하는 결의가 채택되였다. 이어 올해초에는 중동평화에 관한 국제회의가 진행되여 팔레스티나령토에서 이스라엘의 폭행과 유태인정착촌건설을 끝장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나갈데 대한 합의들이 이룩되였다.

이란의 테헤란에서는 팔레스티나인민을 지지하는 국제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이슬람교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있는 이스라엘정권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얼마전 요르단정부는 이스라엘의 도발적인 침략행위를 규탄하는 항의각서를 자기 나라 주재 이스라엘대사관에 보냈다. 각서는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꾸드스에 있는 알 아크사사원에 대한 극단적인 유태인정착민들의 침입행위를 계속 묵인해주고있는데 대해 폭로하면서 이것은 전세계 이슬람교도들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중동평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념원에 도전하여 집요하게 망동을 부리고있는것은 미국이 비호두둔해주고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통령선거때부터 트럼프는 떨어놓고 이스라엘을 비호두둔하는 발언들을 내뱉았다. 지난해 12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유태인정착촌들을 합법화하려는 이스라엘당국의 책동을 반대배격하는 결의가 채택되였을 때에도 트럼프는 반대의사를 로골적으로 표명하였다. 트럼프는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아서도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정착촌확장책동을 비난하는척 하면서 뒤돌아앉아서는 《두개국가해결책》이든 《한개국가해결책》이든 다 좋다고 하면서 눈감아주고있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중동정세가 긴장해지고있는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규탄하고있다.

정의에 대한 지향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는 오늘의 세계는 결코 일부 특정한 나라들의 부당한 압력과 전횡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의가 승리하고 부정의가 반드시 패하는 력사발전의 법칙에 따라 전진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본사기자

ㄱ-711035(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